







**대상별 맞춤형
양성평등교육
표준강의안 매뉴얼
2022**

차례

04

개요

08

보육교사 대상
강의 매뉴얼

52

문화관광해설사 대상
강의 매뉴얼

84

양육자 대상
강의 매뉴얼

대상별 맞춤형 양성평등교육 표준강의안 매뉴얼 2022

✧ 개요

✧ 구성

✧ 추진현황

개요

사업명

- 2022년 대상별 맞춤형 양성평등교육 표준강의안 개발

주요내용

- 대상별 특성 고려,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양성평등 실천방법 등을 중심으로 한 표준강의안 제작
(※ 1회 1시간 기준 강의, 3종)
- 제주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으로 구성

그룹	대상	비고
1그룹	보육교사	어린이집 교사, 유치원 교사 등
2그룹	문화관광 해설자	문화관광해설사,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오름해설사, 마을해설사 등
3그룹	양육자	8~13세 초등학교 학생 학부모

집필진 및 연구진

연번	성명	소속 및 직위	분야	비고
1	임수정	제주관광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양성평등교육 전문강사	보육교사	
2	이윤아	인스에듀 대표/양성평등교육 전문강사	문화관광해설사	집필진
3	고주희	하원초등학교 교사/양성평등교육 전문강사	양육자	
4	고보숙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센터장	총괄	
5	오보람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팀원	원고 수정 및 보완·편집	연구진

사업목적

- 2021년 대상별 맞춤형 5종 강의안 외에 새로운 분야 대상으로 영역 확장
- 교육 대상 및 제주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강의를 통해 양성평등의식 확산 기여
- 전문강사의 역량에 따른 교육내용의 편차 최소화 및 교육내용의 균질성 확보

구성

대상별 맞춤형 양성평등교육 표준강의안 매뉴얼의 구성

교육목표

→ 해당 교육에 대한 목표 기술

교육내용

→ 강의안 및 해당 슬라이드에 대한 간단한 설명 제시

세부내용

→ 슬라이드별 주요내용과 강의에 참고할 수 있는 참고자료,
강의 진행 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 제시

추진현황

추진방법

- 집필진 회의를 통한 집필 주제 선정 및 강의안 작성 방안, 수정 사항 등 논의
-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강의 대상별 특성 파악
- 작성된 강의안 바탕으로 각 분야별 전문가 서면감수 진행
- 서면감수를 통한 집필진 내용 보완 및 집필진 회의를 통한 의견 교환
- 최종 결과물을 바탕으로 센터 연구진의 내용 검토 및 보완 진행

1단계	전문가 자문회의	➔	대상별 특성 및 목표 등 강의안 구성에 따른 내용 자문
2단계	집필진 회의	➔	대상별 표준강의안 계획안 작성 내용 공유
3단계	1차 서면자문	➔	1차 표준강의안 매뉴얼을 바탕으로 강의안 내용 및 구성에 관한 전문가 서면 감수 진행
4단계	2차 서면자문	➔	2차 표준강의안 매뉴얼 바탕으로 강의안 내용 및 구성에 관한 전문가 서면 감수 진행
5단계	집필진 회의	➔	서면 감수 의견 반영을 통한 집필진 의견 교환
6단계	내부 검토	➔	센터 연구진의 내용 검토 및 보완
7단계	마무리	➔	대상별 맞춤형 강의안 및 매뉴얼 집필 완료

시범강의

- 각 분야별 종사자 및 관련자 대상으로 시범강의를 진행을 통한 만족도 및 효과성 측정
- 시범강의 의견을 통해 강의안 내용 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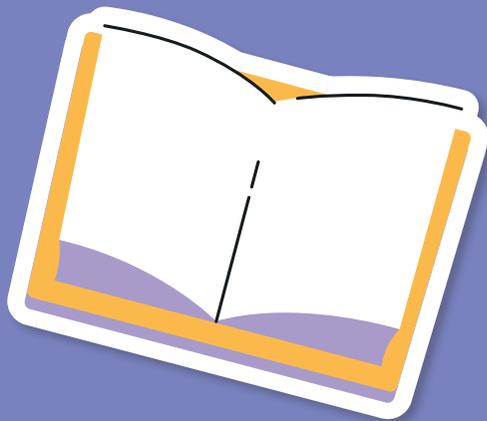
구분	일시	대상
양육자	2022. 5. 21.	꿈바당어린이도서관 프로그램 참여 양육자
보육교사	2022. 6. 30.	제주육아종합지원센터 프로그램 참여 보육교사
문화관광해설사	2022. 10. 24.	제주지역 문화관광해설사 보수교육 해당자



보육교사 대상 강의 매뉴얼

교육목표

- ✦ 영유아기의 양성평등 교육의 필요성을 이해한다.
- ✦ 보육교사의 양성평등 의식 및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한다.
- ✦ 보육현장 속 양성평등 실천 역량을 강화한다.



교육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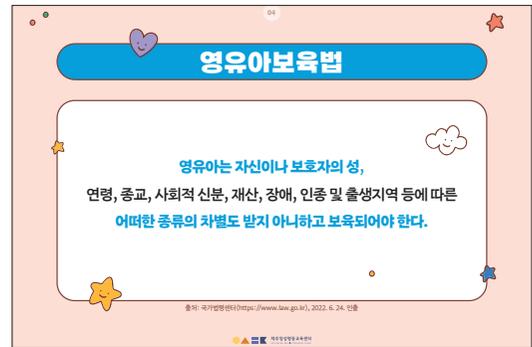


- 1 들어가기**
 - 양성평등 교육을 받아본 경험에 대한 질문을 통해 오늘 교육내용 소개
 - 강의의 주제와 목차 설명
- 2 자신의 성별 고정관념 발견하기**
 - 교사가 현재 느끼고 있는 성별 고정관념을 인식하기
 - 광고 / 동요 / 동화 속 성역할 고정관념 발견하기
- 3 우리나라의 성평등 현황 살펴보기**
 - 우리나라의 성평등지수는?
 - 보육교사 대상 설문조사를 통한 성평등 인식과 실행수준
- 4 성평등한 보육환경을 위한 우리들의 노력 생각해보기**
 - 성평등 체크리스트로 본 우리 교실 속 노력
 - 외국 유치원 사례를 통한 성평등 교육
 - 교사의 언어에 대한 변화
 - 가정과의 연계점 고려
- 5 교사 다짐식 - 나는 성평등한 교사입니다**
 - 자신의 선언문에 직접 적어보기
 - 성평등한 보육현장 속 영유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교사가 되기 위해 다짐하며 마무리

1

들어가기

- ✦ 양성평등 교육을 받아본 경험에 대한 질문을 통해 오늘 교육내용 소개
- ✦ 강의의 주제와 목차 설명



주요내용

- 강의를 시작하며 제목에 담긴 의미를 설명하고, 교육 참여자들과 보육교사로서의 양성평등 교육 의미를 함께 공유함
- 본 강의를 통해 현재 보육현장에서 광고·동요·동화 등을 활용하여 나의 성인지 감수성을 점검하고, 양성평등한 보육현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기를 기대함
-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영유아가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보육되어야 함을 인지시킴

TIP

- 강의를 시작할 때 교육참여자와 강사 간의 라포형성이 중요함
- 일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기보다 아이스 브레이킹 등을 활용하여 교육장의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드는 게 필요함

2

자신의 성별 고정관념 발견하기

- ✦ 교사가 현재 느끼고 있는
성별 고정관념을 인식하기
- ✦ 광고·동요·동화 속
성역할 고정관념 발견하기



주요내용

- 간단한 아이스 브레이킹 게임을 하면서 광고 속에 나오는 도구는 집안에서 주로 누가 사용하는 물건인지 교사들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성역할 고정관념을 유발함
- 첫 번째 사진: 칼 광고, 두 번째 사진: 고무장갑 광고
- 칼과 고무장갑은 왜 여성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지 물어봄

MEMO



삼성전자 광고 영상 관련 참고자료

삼성전자가 2018 러시아 월드컵을 앞두고 이란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린 광고 동영상이 논란이 생김. 변화하는 현실과 다르게 여성의 수동적 역할을 부각했다는 이유에서임

삼성전자 이란 지사가 게재한 동영상에는 소파에 앉아 월드컵 경기를 보는 친구와 가족의 모습이 담겨있음. 영상 속 남성들은 모두 팝콘을 먹거나 스마트폰을 들고 TV 속 경기 화면에 집중하는 반면, 여성들은 아기 요람을 흔들거나 뜨개질을 하는 모습으로 그려짐

영상이 게시된 후 네티즌들은 “삼성의 성차별”, “영상을 내려라” 등 삼성전자를 비판하는 댓글을 대거 달았음. 한 네티즌은 “나는 이란에 살고 있는 여성으로서 어머니 아내가 될 수도 있지만 직업을 갖고 사회적 정체성을 가질 수도 있다”며 “삼성전자의 월드컵 티저 영상은 내 사회적 정체성을 무시했다”고 비판함

삼성전자는 이 영상에 “그 어느 때보다도 스릴에 가까운 열정의 경험!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광경!”이라는 문구를 달았는데, 이 문구를 문제 삼는 네티즌도 많음. 영상 속 여성들은 아이를 보거나 집안일을 하느라 바빠 열정적으로 경기를 보지도, 즐거워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임. 그러나 일부 네티즌들은 이 영상이 이란의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되지 않는다고 반박함. 남성이 사회적으로 우위를 점하는 이란의 현실을 그대로 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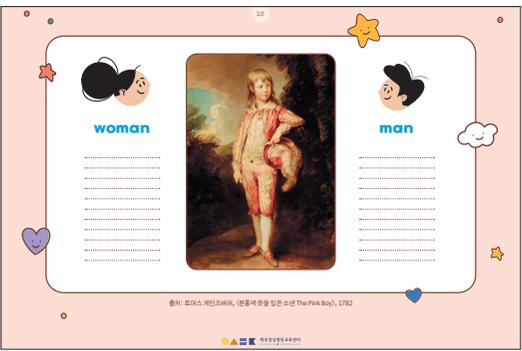
영했다는 것임. 문제의 영상은 29일 새벽(현지 시각) 현재 2만7300개가 넘는 댓글과 8만 8400여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음. 삼성전자는 논란이 거세지자 28일 남성과 여성이 모두 축구 경기를 응원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림



삼성전자 이란 지사가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린 사진

출처: '삼성전자 월드컵 광고, 이란서 '성차별 논란', 『조선일보』, 2018. 5. 29.

MEMO



주요내용

- 사진 및 그림 제시자료, 동화책, 영상매체 속 성역할 고정관념을 무의식중에 갖게 하는 다양한 매체의 영향에 대해 소개함

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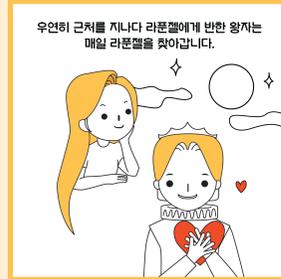
- 사진을 제시하고 사진 속 아이의 모습이 어떤 성별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눔
- 질문을 통해 교사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생각을 들어봄
 - 여자아이일까요? / 남자아이일까요?
 - 여자아이라면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 남자아이라면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 예상답변을 미리 생각하고 교육참여자와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필요 있음
 - 여자아이입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길기 때문에 / 분홍색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등
 - 남자 아이입니다. 왜냐하면 서있는 자세가 남자아이 같기 때문에 / 시대적 배경을 보면 남자아이도 이런 옷을 입었을 것 같기 때문에 등
- 그림을 제시한 뒤 교육참여자의 답을 들으며 강사는 교육에 참여자의 성별 고정관념에 대해 파악한 후, 강의를 진행하는데 참고함
- 만약 비대면 시에는 주석을 활용하여 직접 칸에 본인의 이름을 적어보도록 하거나 스탬프를 찍어 보도록 함

TIP

- 아기상어 노래를 들려주고 이 노래 속 성차별적 요소, 성역할 고정관념을 발견해 봄
- 영유아들이 보는 미디어 매체 속 성별 고정관념이 무의식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며, 아이들의 성장에서 자연스러운 성별 고정관념을 고착화할 수 있음을 인지시킴



라퐁젤 동화 속 젠더이야기 참고자료



출처: 카드뉴스 '라퐁젤은 왜 스스로 탑을 내려오지 않았을까?',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주요내용

-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해 설명한 뒤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소개함
- 영유아기에는 모방을 통해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유아기에는 주변에서 보이는 성역할을 그대로 따라 하거나 성역할 고정관념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높음(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21)
- 영유아기의 성 발달 과정을 설명한 뒤, 이 시기가 매우 성역할 고정관념을 갖기 쉬운 연령임을 강조하며 설명함
-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영유아기 때부터 성평등에 대해 알려줘야 하며, 생물학적 차이는 있다는 것을 서로 인정하고 특정 성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부과되는 편견이나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임을 설명함
- 모든 구성원이 잠재된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기 위함이며, 남자라서 여자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도 여자도 모두 가능한 사회 내 성별 구분 없이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인간관계를 기본으로 서로 존중하며 조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함임을 강조함



- 성평등 교육을 통해 영유아를 보육하는 교사는 “인간은 누구나 성별과 무관하게 동등한 존엄과 가치가 있으며, 성별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존재여야 한다.”라는 인식을 내면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함



성 정체성 관련 참고자료

1. 성역할 고정관념 (gender-role stereotypes)

성별에 따라 바람직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과 태도를 구분하여 행동의 표출, 몸의 자세, 언어적 표현 등을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으로 구분하는 성역할에 대한 신념을 말함.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별에 따라 분류되고 다른 방식으로 교육됨. 가정이나 학교, 사회에서 아이를 대할 때, 성별에 따라 다른 반응과 기대를 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성역할 고정관념이 형성됨

2. 성인지 감수성 (gender sensitivity)

젠더 이슈, 즉 성차별 및 성불평등을 감지하고 그 영향력까지 인지하여, 불합리한 상황을 비판하고, 이를 변화시키기 위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함. 성인지 감수성은 단순한 지식 및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성인지에 이르는 과정에서 그 기초가 되는 정서적 태도 및 가치와 관련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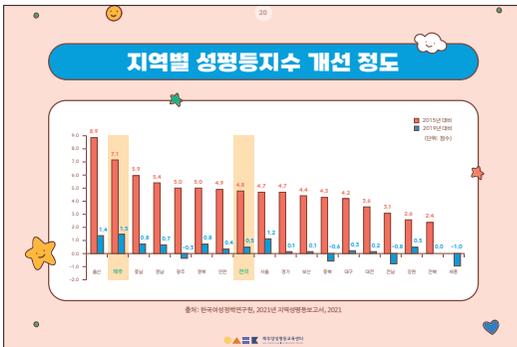
3. 영유아의 성 개념 발달 단계

- 성 정체성은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의 생물학적 특성을 의식하고 자신의 성을 정확하게 명명하고 정서적으로 수용하는 능력과 함께 다른 사람을 남자, 여자로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함
 - 2~7세 유아기에 자신의 성별을 알게 되는 성 정체감 획득을 시작으로 성 일관성을 가지게 되는 일련의 과정이 이루어짐
 - 성 안정성이란 남녀가 자라도 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만 4세경이 이르면 성 안정성에 대해 이해함. 성 항상성이란 외모나 놀이에 따라 성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성에 의해 유지가 된다는 것을 안다는 것으로 대개 7~8세경에 습득됨
 - 성 항상성은 연령이 높을수록, 보존개념과 같은 인지적 성숙에 따라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출처(1, 2번): 아영아,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성인지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 및 인권의식의 조절효과」, 『한국사회복지』,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2020, 51면, 79~98면 • 출처(3번): 정옥분, 『아동발달의 이해(개정판)』, 학지사, 2018

3

우리나라의 성평등 현황 살펴보기

- ✦ 우리나라의 성평등지수는?
- ✦ 보육교사 대상 설문조사를 통한 성평등 인식과 실행수준



주요내용

- 우리나라의 성평등 지수와 제주지역의 성평등 지수를 소개함
- 우리나라 국가 성평등 수준은 2020년 기준 74.7점으로 2015년 이후 매년 0.8~1.0점 정도로 매년 상승치를 보이고 있음
- 제주지역은 현재 우리나라의 성평등 지수 중에서 성평등 지수가 높은 편이긴 하지만 앞으로도 인식 수준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다시 안내함
- 보육교사의 성평등 인식은 매우 높은 편이나 실행 수준은 낮은 편임을 강조하여 설명함
- 보육교사의 인식 및 교육 행동의 변화를 어린이집·유치원의 환경 및 놀잇감 구성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의식수준 7.7 / 실행 수준은 6.9)
- 보육교사의 인식 제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실천에 옮기고, 성평등한 양육·교육 행동을 실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함을 강조함
- 이러한 모순은 양성평등과 관련하여 겪고 있는 교사들의 의식과 무의식 사고와 실천 행위와 가치의 혼란 때문임(안은주, 임부연, 2006)을 설명함



우리나라 성평등지수 수준과 변화 추이 참고자료

- 우리나라 국가성평등 수준은 2020년 기준 74.7점임. 국가성평등 수준은 2015년 70.4점이래 2020년까지 매년 0.8~1.0점 정도로 상승하였고 2020년은 전년 대비 1.0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분야별 국가성평등지수 값을 살펴보면 2020년 기준 보건 분야가 97.0점으로 가장 높았고, 교육·직업훈련 분야(94.2점), 문화·정보 분야(86.4점), 복지 분야(78.0점), 경제활동 분야(76.1점), 안전 분야(71.0점) 순으로 나타남. 반면 의사결정 분야가 37.0점으로 8개 분야 중 성평등 수준이 가장 낮았고, 가족 분야(63.6점)는 성평등 수준이 70.0점 이하로 나타남

출처: 한국어성정책연구원, 『2021 국가성평등보고서』, 2021



부모 및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현황 참고자료

- 교사는 자신의 성평등 의식 수준과 성평등 실행 정도를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스스로가 생각하는 성평등 의식 수준과 성평등 실행 정도를 10점 만점의 점수로 응답하도록 함
- 교사들이 느끼는 자신들의 성평등 의식 수준은 평균 7.7점, 성평등 실행 정도는 평균 6.9점임
- 서울시 영유아 부모 및 어린이집·유치원교사 성평등 의식 실태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교육 방법’은 가장 점수가 높고, ‘환경 구성 및 놀잇감 영역’이 가장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세부 항목별로는 ‘활동의 끝난 후 정리정돈은 주로 여아에게 시킨다.’와 ‘남아는 활동적으로, 여아는 차분하게 행동하도록 지도한다.’가 3.73으로 가장 성평등 지수가 높아, 성별 고정관념에 의한 영유아 행동 지도가 거의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남
- 환경 구성 및 놀잇감 영역이 타 영역에 비해 점수가 많이 낮으며, 특히 ‘그림책을 고를 때 주인공 남녀 비율이 어떤지, 전통적인 성역할만 다루지는 않았는지 등을 확인한다.’는 2.26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성평등한 그림책을 고르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모색도 필요함

출처: 김송이·심자영, 『서울시 영유아 부모 및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성평등 의식 실태조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9

MEMO



보육교사의 성평등 현황 참고자료

-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양성평등 의식 수준과 실행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인천 서구지역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실시함
- 본 연구 결과, 첫째 양성평등 의식 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하위 영역에서는 사회문화영역에서 양성평등 의식 수준이 가장 높았고 가정생활 영역이 가장 낮았음
- 특히 여자는 전문직을 갖더라도 우선 가사와 육아를 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식과 안정된 가정을 위해서는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가장으로서의 위엄과 권위를 지켜야 한다는 의식은 다른 문항에 비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남녀관계에서 여자의 적극성이나 여자는 결혼하면 가사에 충실해야 한다는 내용에서는 평등 의식이 높게 나타나, 능력이나 행동에 관한 부분에서는 평등 의식이 높았고 사회적 위치 역할에 관해서는 평등 의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가정생활에서 양성평등 의식이 낮은 것은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 정립과 아들과 딸을 달리 양육하고 다르게 기대되면서 자라온 환경의 영향력으로 여전히 그들의 의식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판단됨
- 부모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가정생활 영역에서 평등 의식은 변화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양성평등 의식은 교육기관의 작용뿐만 아니라 가정과 부모의 영향력이 크게 자리하여 보육교사뿐만 아니라 부모에 대한 양성평등 교육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함
- 둘째 보육교사의 양성평등의 실행 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음. 실행의 내용 중에서 발표나 질문 기회를 성에 따라 차이를 두지 않는 것이나 성에 따라 차별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과거에 남자의 몫이라고 여겨왔던 양보를 남아에게 요구하거나 정리 정돈은 여아에게 더 요구하는 것은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양성평등 실행 수준이 높았음
- 반면 역할 놀이에서 엄마의 역할은 가사 육아 중심의 놀이로 이루어지게 한다거나 남아는 파란색 여아는 분홍색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예는 아직도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음
- 실행 수준이 가장 낮은 것은 영유아를 칭찬하거나 격려할 때 성별에 따라 다른 말을 사용하는 것임
- 양성평등의 실행에서 성별에 따라 차별적인 언어로 훈육하는 경우는 양성평등 실행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칭찬이나 격려할 때는 성별에 따라 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예가 더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남

출처: 조유나·오선영, 「보육교사의 양성평등 의식 및 실행수준에 관한 연구」,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학회, 2018

MEMO



주요내용

- 놀이시간 속 성차별적 요소 및 성역할 고정관념을 줄 수 있는 사례를 소개함
 - 예) 역할놀이를 좋아하는 남아 / 블록놀이를 좋아하는 여아를 대하는 교사의 태도 나 언어 / 대그룹 활동 시 예쁘게 앉아보자라고 말하기 / 놀이 시간에 간호사 언니, 경찰 아저씨라고 역할을 성별로 구분 지어 부르기 /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 제시하는 그림 자료에 남자는 바지를 입고, 여자는 치마를 입은 모습을 제시하기 등
- 만약 여자아이가 드레스를 입고 왔다면, 만약 남자아이가 드레스를 입고 등원을 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은지 강사가 질문을 던지고 참여자의 생각을 들어봄
- 블록놀이를 하는데 남자아이가 블록놀이를 하고 있지 않다면 교사는 어떤 말과 행동을 하게 될지를 떠올려보는 등 보육 일과 중 유아들의 생활과 연관된 사례 등을 이야기 나누며 상호작용을 함

TIP

- 보육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례를 통해 교사가 아이에게 대하는 태도와 언어가 영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며 설명함

MEMO



주요내용

- 영유아기 시절 성역할 고정관념을 주입받는 것은 한 아이의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는 만큼 교육계가 나서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함을 다시 강조함
- 어느 부모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어린이집을 보내고 난 뒤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느꼈던 성차별적 상황을 소개함
-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영유아 상품의 성별에 따른 색깔 구분 및 표기 관행 개선을 위한 의견에 대한 진정서가 받아들여져 장난감에도 성중립이 이루어지도록 결정하였음을 안내함
- 레고 장난감 회사에서도 성역할 고정관념 탈피를 위해 더 다양한 캐릭터 및 역할을 제공하겠다고 보도하였으며, 점점 영유아 상품에서도 성평등한 흐름이 생기고 있음



아동 장난감에 대한 참고자료

사회적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졌다지만 여전히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어린이날 선물'이 쏟아지고 있음. 학부모와 전문가들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성역할 고정관념을 내면화하고 스스로의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음. 어린이날인 5일 서울 송파구의 한 대형마트의 완구 코너에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반영된 장난감이 수북했고, 장난감 포장 박스에 남아가 그려진 장난감의 경우 경찰-의사-중장비기사 등 '직업'과 관련한 것이 대부분인 반면, 여아가 모델인 장난감은 엄마-주부-화장 등 '가사'에 맞춰진 경우가 많았음. 여아를 대상으로 한 엄마놀이 장난감에는 "아기 돌보기의 소중함을 알려준다", "착한 마음을 길러준다" 등의 전통적 여성상을 강조하는 설명이 적혀있기도 함. 학부모들은 일찍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역할 고정관념을 주입하는 환경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갈 길은 멀었음. 장난감뿐 아니라 만화, 유튜브 같은 콘텐츠 제작자 등도 여전히 성 이분법적인 가치를 주입해 아이들이 이를 자연스럽게 좇게 되는 탓임.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지난해 국내 방송 중인 TV 아동 애니메이션 112개를 분석한 결과, 주인공 10명 중 7명 가까이(68%)가 남자로 설정된 사례가 대표적임. 등장 인물 중 여성 캐릭터만 요리와 뜨개질을 하는 등 성 역할 고정관념을 조정하거나 외모 지상주의를 부추기는 내용도 54건에 달함. 단체 사무국장인 장하나씨는 “학부모가 노력해도 기성 사회가 바뀌지 않으니 아이들을 설득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꼬집었음.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이를 부모들은 어린이날 선물 고르기까지 난감하기까지 함. 아이들 스스로가 고정관념을 학습해버린 경우가 많아서임. 경기 화성시에서 4살 딸을 키우는 신모(33)씨는 “아이에게 성평등 개념이 반영된 장난감을 사주려 노력했는데 어느 날 어린이집을 다녀오더니 ‘파랑은 남자 애들 것’이라고 하더라”며 “아이가 싫다는 걸 강요할 수도 없어 오늘은 공주님 세트를 사줄 예정”이라고 함. 이에 대해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학부모들이 교육기관보다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 ‘예민한 부모’가 돼가며 교육기관에 항의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어린 시절 성역할 고정관념을 주입받는 것은 한 아이의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는 만큼 교육계가 나서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라고 함

출처: 「여자답게? 딸이 받아온 어린이날 선물에 울해도 한숨」, 『한국일보』, 2020. 5. 6.



국가인권위원회 참고자료

“분홍색은 여아용, 파란색은 남아용 등 영유아 상품 성별 구분은 성역할 고정관념 강화할 수 있어” - 인권위, 영유아 상품 성별구분, 성역할 고정관념 강화 개선 필요 의견표명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영유아 상품을 생산·판매하면서 상품의 기능과는 무관하게 ‘분홍색은 여아용, 파란색은 남아용’으로 성별에 따라 색깔을 구분하고 그에 따라 성별을 표기한 행위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학습하게 하는 등의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성별에 따라 색깔을 구분하는 방식을 탈피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식회사 ○○○ 대표이사 등 피진정인들에게 의견을 표명함
- 진정인(정치하는엄마들)은 영유아 상품을 생산하는 회사들이 기능과 무관하게 ‘분홍색은 여아용, 파란색은 남아용’으로 성별을 구분하고, 소꿉놀이를 여아놀이로 취급하는 등 아이들에게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시키고 있다며 이를 개선해달라고 진정을 제기함
- 진정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진정인들은 판매·유통상 편의를 위해 상품에 성별을 표기하였고, 이는 색깔에 따라 성별을 구분하는 사회·문화적 관행에 익숙한 소비자의 선호를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함 이후 인권위 조사 중 피진정인은 영유아 상품에서 성별표기 및 성차별적 문구를 삭제조치하거나 향후 개선할 계획임을 밝힘

- 상품의 색깔에 따른 성별 구분은 20세기 중반 이후 ‘다품종 소량생산’ 체계로 전환되며 생기기 시작했고, 1980년대 이후에는 본격적인 판매 전략으로 자리 잡게 되었음. 이러한 경향은 상당 기간 유지되어 현재에도 영유아 상품의 상당수가 성별에 따라 색깔을 구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꿉놀이, 인형 등은 여성성을 상징하는 분홍색 계열로, 자동차나 공구세트와 같은 기계류 등은 파란색 계열로 제작되고 있음. 이를 통해 아이들은 색깔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에 따라 여성은 연약하고 소극적이고, 남성은 강인하고 진취적이라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학습하게 되고, 가사노동이나 돌봄노동은 여성의 역할이라는 인식을 무의식중에 갖게 됨. 이러한 성역할 고정관념은 아이들의 미래의 행동, 가치관 및 직업선택에도 영향을 주게 됨.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아이들은 사회·문화적 관행에 따라 구성된 젠더(gender)에 부합하는 성역할(gender role)을 학습하게 되고, ‘여성다움’, ‘남성다움’이라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내면화하는 방식으로 사회화되어 성차별이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함
- 영유아기는 사회규범을 내면화하고 성역할을 습득하는 등 개인의 가치관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기로, 성역할 고정관념 등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 쉬운 시기임. 이 시기에 제공되는 놀이, 경험 등의 환경은 아이들로 하여금 그것이 자신에게 적합하다는 인식을 자연스럽게 갖게 하며, 그 결과로 행동이나 태도 그리고 놀이와 직업을 선택할 때 스스로가 원하는 것이나 자신의 재능 또는 가능성이 아닌,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성에 대한 정형화된 관점에 따른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 최근 해외 각국에서도 성별을 구분하는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비판과 지속적인 개선요구로 영유아 상품의 성별 구분이 점차 사라지고 있음.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은 2015년 5월부터 기존에 남아, 여아로 구분하던 아동용 완구를 ‘아동완구’로 통합해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미국과 영국의 완구 매장에서 성별 구분을 없애는 곳들이 늘고 있음. 이처럼 성별을 구분하는 것이 성역할 고정관념을 심어줄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기업들도 성별 구분을 삭제하는 등 개선 움직임이 활발함
- 영유아 상품의 성별 구분은 단순한 ‘구분’에 머무르지 않고 성역할 고정관념을 심어주는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인권위는 우리 사회가 성별에 따라 색깔을 구분하는 방식을 탈피,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사람 자체로 접근하는 ‘성중립적인(gender-neutral)’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의견표명을 함
- 한편 이번 진정사건은 상품의 색깔을 성별구분 기준으로 삼아 상품에 성별을 표기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해당 상품을 구매하는데 제한이 있지는 않는 점을 고려하여, 진정사건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각하 결정함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영유아 상품 성별구분, 성역할 고정관념 강화 개선 필요 의견표명」, 『아시아뉴스통신』, 2021. 5. 4.

MEMO



성 중립 장난감에 대한 참고자료

세계적인 장난감 기업 레고가 이용자 성별 구분을 없애고 성(性) 고정관념에서 자유로운 제품을 만들겠다고 선언함. 레고는 성명을 내 그동안 자사 제품에 붙였던 '여아용', '남아용' 등 성별 표기를 담은 라벨을 떼고 성 중립을 표방하겠다고 발표함

레고는 “어릴 적 편견을 없애려는 발전이 이뤄져 왔지만, 놀이와 창의적인 업무를 둘러싼 일반적인 태도는 여전히 불평등하고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함. 이어 “오늘날 여자아이들은 더 자신감을 갖고 모든 형태의 놀이와 창의적인 활동에 관여하고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사회에서 습득하는 성역할 고정관념으로 인해 제한을 받고 있다”고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함

이번 결정은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글로벌 설문조사를 거침. 7개국 약 7천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이번 조사에서 부모와 아이들은 여전히 성적 관념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여자아이들은 성 규범의 경계를 넘는 활동에 남자아이들보다 더 높은 참여 의사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음. 부모와 사회가 전형적으로 권장하는 것보다 다양한 종류의 창의적인 놀이에 열려있다는 것임

여자가 축구를 하고, 남자가 발레를 하는 것에 대해 ‘괜찮다’고 답한 여자아이는 전체 응답자의 82%임. 같은 문항에 대한 남자아이들의 응답률 71%와 비교됨. 레고는 앞으로 여자아이와 남자아이들이 환영받지 못하거나 자신이 대표되지 않았다고 느끼지 않도록, 더 다양한 캐릭터와 역할을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밝힘. WP는 레고의 이번 결정이 장난감 놀이가 성역할 고정관념을 만들고 고착화한다는 논쟁이 가열된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전함. 앞서 미 캘리포니아주는 장난감 판매점에 성 중립 진열대를 의무화하는 법을 마련함. 2024년부터는 대형마트에 장난감을 성별 구분 없이 한곳에 진열해두는 성 중립 진열대가 의무적으로 설치될 예정임.

출처: '레고, '여아용·남아용' 구분 없앤다...성 중립' 표방, 『연합뉴스』, 2021. 10. 13.

MEMO

4

성평등한 보육환경을 위한 우리들의 노력 생각해보기

- ✧ 성평등 체크리스트로 본 우리 교실 속 노력
- ✧ 외국 유치원 사례를 통한 성평등 교육
- ✧ 교사의 언어에 대한 변화
- ✧ 가정과의 연계점 고려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들여다보기

1. 어린이집의 환경구성

2. 보육과정 및 교사 - 영유아의 상호작용

3. 어린이집의 부모참여 및 교육

출처: 이현영 외, 영유아보육시설의 질 향상 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2019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들여다보기

1. 어린이집 환경



교실환경 체크해보기

우리 교실은...	영유아 그림자	조금 그림자	남편(아) 그림자	그림자 없다	영유아 그림자 없다
교실환경이 유해한 환경없이 영유아 생활에 따른 특성이 드러나게 꾸며져 있다.					
영유아의 생활에 따라 미술활동 등의 배치를 파악, 분할계열로 구분하고 있다.					
개인 사생활과 신장장의 이혼과 인체의 그림이 생략된 낙우가 있다. (예: 남자는 신기, 여자는 호기 등)					
효율성의 인형의 사용법이 명확하지 않고 여자화장실은 빨간 치마 입은 여자그림만, 남자 화장실은 파란 바지 입은 남자 그림만 그려져 있다.					
직접이나 예열에 고정관념 갖게 하는 표시를 고수, 놓이지 않아 있다.					
편안, 균형, 중립은 파악되어 대부분이다.					

우리 어린이집은 어떻게요?



교실환경 체크해보기

**혹시 우리반에도
성역할 고정관념이 담겨 있는
놀이감이 있나요?**

어떻게 수정할 수 있을까요?

**보육교사가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양성평등한 교실을 만들어 주어야
영유아기에 성역할 고정관념이 생기지 않게 됩니다.**



주요내용

- 어린이집의 환경구성, 보육과정 및 교사 - 영유아의 상호작용, 어린이집의 부모참여 및 교육적인 측면에서 성평등한 보육환경을 위한 노력에 대해 설명함
- 영유아 아이들이 가정과 연계하여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보육시설 임을 소개한 뒤 보육시설 내의 환경 속 성차별적 요소를 점검이 필요함을 이야기함
- 체크리스트를 활동지를 나누어 준 뒤 스스로 교실 환경을 점검 해보도록 안내함

- 교실 환경 체크 성인지 감수성 체크리스트를 나누어 준 뒤 각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 후 스스로 해당 여부를 파악해보도록 안내함
- 환경 구성 시 작은 요소 하나일지라도 양성평등한 교육 환경을 구성하기 위한 세심한 고려, 적극적 노력, 능동적 대처가 요구됨을 설명함
- 만약 우리 반 영유아들의 놀이를 관찰하였을 때에 성별에 따라 특별히 선호하는 놀잇감과 공간이 나뉜다면, 교실 환경의 성차별적 요소에 대해 점검해 보기로 함
- 현재 자신이 근무하는 보육 기관 내의 환경 속 성차별적 요소가 있다면 어떻게 수정하면 좋을지에 대해 함께 대안을 발견해 봄
- 기관 환경, 교실 환경, 교구 및 장난감으로 분류하여 질문을 던지며 다시 점검해 보도록 안내함 (예: 교실 이름표 / 환경 게시물 / 동요 / 동화 속 / 그림책)

TIP

기관 환경

- 공간, 장난감 등 교구 및 장난감 배치 등 환경의 중요성
- 출입구, 복도 등 디자인 둘러보기
- 등하원 버스에서는 어떤 동요를 들려주는가?
- 홍보물 및 안내 책자 살펴보기

교실환경

- 성별에 따라 놀이 공간이 구별되어 있지는 않은가?
- 신발장 이름표 등 개인의 선호와 관계없이 색깔을 분홍과 파랑으로 일률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 직업이나 역할에 고정관념을 갖게 하는 그림이나 사진은 없는가?
- 양성평등하지 못한 교재나 교구 찾아보기

장난감 관찰하기

- 성별로 선호하는 장난감별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은가?
- 성역할 고정관념이 반영된 장난감은 없는가?
- 여아와 남아 모두에게 모든 영역의 놀이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가?
- 어린이집 교실 환경에는 교사가 제공하는 환경구성부터 미술작품 게시, 이름표 등 교사는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영유아에게 적합한 환경, 교육적 자극이 풍부한 환경, 심미적으로 가치 있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려고 노력 해야함

- 교사도 미처 깨닫지 못한 곳에 성차별적인 요소가 내재해 있을 수 있음. 예를 들어, 교사는 영유아들의 이름표를 제작하거나 작품을 전시하는 과정에서도 남자아이는 차가운 계열을 사용하고, 여아는 따뜻한 색계열을 사용한다면, 이러한 환경들이 무의식중에 영향을 미쳐 성별에 따라 영유아의 색 선호도를 다르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함을 강조해서 설명함



체크리스트 예시

우리 교실은...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교실환경이 주제와 관계없이 영유아 성별에 따른 특징이 드러나게 꾸며져 있다.					
영유아의 성별에 따라 미술활동 등의 배지를 파랑, 분홍계열로 구분하고 있다.					
개인 사물함과 신발장의 이름과 안내의 그림이 성별로 나누어져 있다.(예: 남자는 사자, 여자는 토끼 등)					
화장실의 안내와 사용법이 정확하지 않고 여자화장실은 빨강 치마입은 여자그림만, 남자 화장실은 파란바지 입은 남자 그림만 그려져 있다.					
직업이나 역할에 고정관념을 갖게 하는 게시물, 교구, 놀잇감이 있다.					
부엌 소품에는 분홍색이 대부분이고, 블록, 공룡, 동물은 파랑색이 대부분이다.					

출처: 양미선 외, 『양성평등 어린이집 시범사업 모델연구보고서』, 육아정책연구소, 2020, 103면 일부 내용 수정

MEMO



책장 평등 지수 자가진단 테스트

 **우리집 책장은 평등한가요?**



우리집 책장은 평등한가요? 

해당사항이 여러개라면 중복체크 해주세요. (예, 1번 같은 문제 2개 발견 -> 해당사항 2개)

	<p>해당사항 0~1개 아주 좋아요!</p> <p>아이들에게 읽어주기 아주 적절한 그림책입니다. 아이들 손에 잘 닿는 곳에 두고 수시로 읽어볼 수 있게 독려해주세요.</p>
	<p>해당사항 2~4개 나쁘지 않아요.</p> <p>책의 전반적인 내용이 아닌 일정 부분에 해당한다면 나쁘지 않아요. 해당 부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며 읽어주세요.</p>
	<p>해당사항 5~7개 나빠요.</p> <p>해당사항이 5개 이상이라면 일정 부분이 아닌 그림책 전반적으로 불평등하거나 고정관념적인 표현이 많다는 뜻이에요. 급적이면 아이가 읽지 않도록 해주세요.</p>
	<p>해당사항 8개 이상 아주 나빠요.</p> <p>이런 책은 아이의 올바른 인성 발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잘못된 시각을 배울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가능성도 제약할 수 있어요.</p>

우리집 책장은 평등한가요?



책장 평등 지수 자가진단 테스트



01 등장인물의 성비가 동일하지 않나요?

주인공 또는 보조 캐릭터를 통틀어 스토리의 흐름에 관여하는 등장인물의 성비가 동일하지 않은지 확인해주세요.



02 여자 캐릭터는 스토리 흐름에 중요한 역이 아닌 보조 역할로 나오나요?

여자 캐릭터가 남자캐릭터만큼 스토리 흐름에 관여하는 대사와 역할을 하지 않고, 보조적인 역할만 하거나 비중 없는 대사만 하나요?



03 남자 캐릭터의 성격이나 행동, 말투가 성고정관념적인가요?

개구지며 말쑥을 자주 일으키거나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는 역할로 나오나요? "남자는~" 같은 말이나 행동을 하나요? 감정 드러내기를 거부하거나 로봇이나 공룡, 자동차만 좋아 하나요?



04 여자 캐릭터의 성격이나 행동, 말투가 성고정관념적인가요?

겁이 많고 도전을 두려워 하거나 다른 캐릭터를 돕거나 보조하는 역할로 나오나요? 분홍색 옷이나 악세사리를 하고 야외 활동도 치마를 입고 나오는 등 외모에 치중하며 감정적이고 질투심이나 허영심이 많게 그려 하나요?



우리집 책장은 평등한가요?

책장 평등 지수 자가진단 테스트



05 그 외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 시키는 내용이 있나요?

직업 : 교장 선생님, 의사, 사장님, 조종사 등은 남성임에 반해 평교사, 비서, 서비스직은 여성 / 역할 : 아이를 돌보거나 집안일을 하는 주체는 여성, 출근하고 가게를 부양하는 주체는 남성인가? 도움을 주는 사람은 남성이며 도움을 받는 사람은 여성인가?



06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는 표현이 있나요?

여성은 예쁘고 날씬해야 한다거나 뚱뚱한 사람을 비하하거나 희화화 시키진 않나요? 예쁘고 잘생긴 사람이 주인공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보조 역할로 한정 되지는 않나요?



07 배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성비 및 연령대, 구성원의 다양성이 부족한가요?

스포츠 경기장, 회사 장면에는 남자 위주, 서비스직 또는 잠을 보는 사람은 여자만 나오나요? 평범한 길거리, 마을 등에는 젊은 남녀만 등장하고, 가족 구성원의 다양성(한부모, 조부모 가정 등)은 반영되지 않나요?



08 그 외 다른 문제들이 있나요?

사회적 약자를 비하하거나 희화화 하는지, 문제 해결 후 평가와 보상 방식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가정을 부양하는 등직한 남편&실력을 잘하고 인내심 많은 아내 또는 애교 많은 딸이나 사고만 치는 아들이 나오진 않는지 살펴보세요.

출처: 그림책 큐레이션 우따다 북클럽, 「딱따구리와 함께 하는 책장 평등 지수 자가진단 테스트」, 네이버블로그



성차별, 성별 고정관념 사례 참고자료

놀이와 교재에 나타난 성차별, 성별 고정관념 사례

-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며 커다란 곰이 나오는 장면에서 굵은 남자 목소리로 곰 목소리를 흉내 내는 것
- 선생님이 아이들을 위해 놀잇감을 사려고 살펴보면서 남자아이들이 좋아하는 것과 여자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여자놀이 / 남자놀이)

언어적 편견: 성별로 아이들 구분 짓기

- 아이들이 줄을 서서 이동하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한쪽에는 여자아이들을 또한 쪽 줄은 남자아이들을 줄을 세우고 “한 줄 기차로 내려갈 거예요! 여자 친구들 줄부터 출발할게요”라고 말하는 것
- 여자아이 한 명이 하얀색 드레스를 입고 어린이집에 왔는데 선생님이 “와! 공주님 같은 드레스를 입고 정말 예쁘고 여성스럽다!”라고 말하니 칭찬을 들은 아이는 좋아하고 다른 아이들은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는 상황
- 선생님과 어린이집 학부모가 이야기를 하면서 선생님이 “아버님도 육아를 많이 도와주시나봐요”라고 물어보는 것

단정적 표현

- 남자아이가 울고 있는 선생님은 아이에게 무슨 일인지 물어보기 위해 자세를 낮추고 눈을 맞추며 “무슨 일이야 선생님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지? 남자아이치고 눈물이 많네”라고 말하는 상황
- 여자아이들이 모여 앉아 공주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많은 아이들이 분홍색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 선생님이 “역시 여자아이들은 분홍색이랑 공주를 좋아하는구나. 여자아이들의 본능인가봐!”라고 하는 것

주변환경

- 역할놀이 영역에서 다양한 직업을 표현한 그림이 의사는 남자, 간호사는 여자 그리고 과학자는 모두 남자고 미용사는 여자로 그려져 있는 상황
- 아이들의 신발장에 남아들의 이름표는 파란색, 여아들의 이름표는 분홍색으로 부착해 놓은 것

출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들을 위한 성인지 교육 교재』, 2020

MEMO



성역할 고정관념 탈피를 위한 교사의 영유아지도 적용 방법의 사례 참고자료

-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활동을 제공한다: 아동이 '성적 적합성' 여부가 아니라, 자신의 흥미에 따라서 장난감과 활동을 선택하도록 함
- 아동이 성취하려는 영역에 성인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남자와 여자가 각각 잘하는 일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이 아동들에게 전달되는 것은 자신과 다른 성에 전형적인 영역에서의 성취에 대한 유능감, 흥미, 그리고 동기를 감소시킴. 이는 아동의 잠재력 실현을 저해함. 열심히 노력하면 성취하려는 어떤 영역에서든지 능력을 키울 수 있음을 지지해줌.
- 아동들에게 성차가 아닌, 개인차를 인지하도록 한다: 아동에게 개인차에 대해 알려주는 것은 아동들이 동성집단과 반드시 같아야 한다는 압박감을 감소시킴. 이는 아동의 고정관념적 태도와 행동을 억제함
- 상투적으로 성과 성역할 고정관념을 표현하는 말을 피한다: 성차를 지칭하는 말을 피함으로써 동성의 아이들에게 유사하게 여기거나, 성역할 고정관념을 받아들이지 않게 도울 수 있음. "남자 친구들은 집중력이 부족해", "여자 친구들은 미술을 잘해" 라기보다는 "진영이와 미수는 집중을 잘 안하는구나", "수미는 미술을 좋아해" 등으로 각 개인에 대한 평가를 함
- 성역할 고정관념상 비전형적인 모델을 아동들에게 제시한다: 아동들에게 성적으로 비전형적인 활동이나 직업에 종사하는 성인모델을 제시함. 이는 아동들이 성적으로 고정된 선택이 아닌, 자신을 위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많음을 말하는 것임
- 동성이라도 개인적 다양성이 있음을 특별히 강조한다: 예를 들어 '남자 아이들 중에도 수학을 잘하는 친구와 못하는 친구가 있고, 여자아이들 중에도 수학을 잘 하는 친구와 못하는 친구가 있어 "또는 남자아이들 중에도 스포츠를 좋아하는 친구도 있지만 싫어하는 친구도 있어"라고 함
- 남녀가 상호 교류하는 기회를 가지도록 한다: 남녀 혼합집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아동들은 자신과 다른 성에 대해 고정관념과 편견을 덜 가질 수 있음
- 아동들과 성적 편견에 대해 이야기한다: 왜 특정 사회적 역할이 남성 또는 여성에 제한되어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 아동들이 성적 편견의 환경적 요인을 이해하고, 생득적 성차에 대하여 이야기함

출처: 로라 E. 버크, 『아동발달(제9판)』, 이종숙 옮김, 시그마프레스, 2014

MEMO



주요내용

- 양성평등 실행수준이 낮은 영역 중 교사의 언어가 가장 성차별적인 요소가 많음을 다시 상기시키며, 교사의 언어습관 점검을 통해 성평등한 언어로 바꾸어 보도록 함
- 교사가 영유아와 나누는 일상 속의 상호작용 속에서도 성차별적인 요소가 숨어 있음을 인식하고, 자신이 가진 성차별 의식이 태도 대화 등을 통해 영유아에게 의도하지 않아도 영유아의 성역할 고정관념 형성에 영향을 끼치게 됨을 소개함

- 질문을 던지며 교사 스스로 생각해보도록 안내함
 -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의 상호작용 중에 성차별적 요소가 있는지 알아보을까요?
 - 성평등한 상호작용으로 바꾸어 볼까요?
-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가정으로 보내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가정과 연계하도록 노력함
 - 예: 엄마가 아닌 가족 구성원 모두의 역할 중요성, 부모의 성평등한 모습이나 역할 보여주기, 자녀 성별로 구분하지 않는 역할분담, 양성평등에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 및 그림책 안내하기 등



서울시 성평등 어린이사전 참고자료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생활 중 어린이가 겪는 성차별이 가장 심한 부분

‘선생님의 말과 행동’(31.4%)이 1위로 꼽혔고, ‘교육 프로그램’(26.1%), ‘친구들의 말과 행동’(21.8%), ‘교재·교구·교육내용’(19.1%) 순을 보임



언어: “엄마는 아빠다리 할 수 없나요?”, “여아는 형님반 갈 수 없나요?”

- “엄마-아빠도, 여아-남아도 할 수 있는 나비다리” 시민들은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바닥에 앉아 놀이 하거나 수업을 들을 때 주로 하는 ‘아빠다리’를 성별을 지칭하는 용어가 아닌, 다리 모양에 따라 ‘나비다리’로 바꾸자고 제안함.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나비 날개 모양을 본뜬 말로 바꾸자는 의견임
- “여자 어린이도 진급할 수 있는 7세반”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진급할 때 배정받는 ‘형님반’을 여아, 남아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7세반’, ‘나무반’ 등 성별 구분 없는 언어로 부르자고 제안함

수업·놀이: “여아는 발레·인형놀이, 남아는 태권도·공놀이 해야 하나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수업, 놀이, 학예회, 역할극, 체육대회 등에서 아직도 남아 있는 성별 고정관념을 이제는 개선하자는 요구도 높았음. 학예회에서 ‘여아는 발레, 남아는 태권도’를 하는 것, 역할극에서 ‘여아는 토끼, 남아는 사자’ 역할을 맡는 것, 이름표, 실내화와 같은 준비물, 학용품이 ‘여아용은 핑크, 남아용은 파랑’으로 고정된 것 등을 아이들이 원하는 것으로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자는 의견임

주제	어린이가 겪는 차별 행동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성별로 놀이·수업 구분	학예회 때 여자는 발레, 남자는 태권도 해요.	학예회 공연에서 남녀 구분 말고 자유롭게 선택해요.
	역할극에서 여자들은 토끼나 다람쥐, 남자들은 사자나 곰 역할을 해요.	개인의 특성에 맞게 역할을 나눠요.
	여아는 소꿉놀이, 인형놀이, 남아는 자동차놀이, 팽이대결 해요.	여아, 남아 구분 없이 하고 싶은 놀이 하고 놀아요.
성별로 색깔·무늬 구분	이름표, 실내화, 가방, 학용품 등 여자용은 핑크, 꽃무늬, 레이스, 남자용은 파랑 자동차·공룡 무늬예요.	좋아하는 색깔, 무늬, 동물 모양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요.

차림·외모: “졸업식에서 여자는 드레스, 남자는 턱시도 입어야 하나요?”

어린이집, 유치원의 졸업식에서 ‘여자는 드레스, 남자는 턱시도’, 생일파티에서 ‘여자는 공주 옷, 남자는 왕자 옷’을 입고 오도록 하는 것, ‘여자는 긴 머리에 날씬한 몸매, 남자는 짧은 머리에 큰 키’ 등 차림과 외모를 성별로 구분하는 것도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남

성격·행동: “여자는 얌전해야 하나요? 남자는 울면 안 되나요?”

‘여자는 얌전해야지, 남자는 울면 안 돼’ 등 여성과 남성에 대한 편견을 담은 말, ‘멋진 왕자님, 예쁜 공주님’ 등 성별로 구분하는 수식어도 개선해야 할 성차별적 말과 행동이라는 의견임

주제	어린이가 겪는 차별 행동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성별로 놀이·수업 구분	여자는 얌전해야지. 남자는 울면 안 돼.	“여자는~, 남자는~” 성별로 행동을 나누지 말아요.
	멋진 민이, 예쁜 수빈이 (2014년 출생자 중 사용 1위 남아·여아이름)	튼튼한, 씩씩한, 밝은 어린이 등 개인의 특성에 맞는 수식어를 사용해요.
	여자니까 남자들을 꼼꼼히 도와줘야 해. 남자니까 여자를 지켜주고 보호해야 해.	친구들을 서로서로 아껴주고 배려해요.

규정·지도: “여자는 치마·남자는 바지 교복 입어야 하나요?”

‘여자는 치마, 남자는 바지로 정해진 원복·교복’, ‘남자가 앞번호인 출석번호’, ‘짝의 성별을 고정한 남녀 짝꿍’ 등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정해진 규정, 규칙에 대한 성차별 개선의 요구도 높았음. 가정통신문 등의 알림장에서 보호자의 역할과 아이 지도의 역할을 엄마에게만 부여하는 것도 성차별 적이라는 의견도 있음

주제	어린이가 겪는 차별 행동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성별로 규정·지도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원복, 초등학교 교복이 여자는 치마, 남자는 바지로 입어요.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치마, 바지 선택할 수 있게 해요.
	짝꿍을 할 때 꼭 남녀로 짝을 지어요.	좋아하는 친구나 제비뽑기 등 남녀 구분 없이 짝을 정해요.
	출석번호를 남학생 먼저, 그 이후 여학생 순으로 정해요.	가나다 순으로 출석번호를 정해요.
	어머님! 가정에서 우리 아이 이렇게 지도해 주세요.	○○○보호자님! 가정에서 우리 아이 이렇게 지도해 주세요.

출처: 『서울시 성평등 어린이사전』,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20. 11. 20.

TIP

- 교사들의 사례를 들어보고 현장에서 바로 바꾸어 보도록 변형을 해도 됨

사례 1: 아이가 건강하게 등원했다가 갑자기 열이 나는 상황

누구에게 먼저 전화를 하는지 강사가 질문을 던진다. 부모가 다 있는 경우, 아빠에게 전화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선생님은 많지 않았다. 자녀를 기르고, 보살피는 책임은 어머니에게 있다는 생각을 교사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례 2: 영아(12개월미만) 반 아이가 울고 있는 상황

한 선생님이 아이가 울자 기저귀를 갈기 위해 아이를 안고 가면서, 아이에게 “남자는 우는거 아냐”, “남자는 태어나면서 세 번 우는거야”라고 단호하게 아무 의심 없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교사는 너무 자연스럽게 성별에 따른 역할과 기대를 아이와 상호 작용하면서 보여준 것이다. 같은 상황을 겪지만 상대 아동이 남성인지 여성인지에 따라 훈육 태도에 차이가 많다.

5

교사 다짐식 -

나는 성평등한 교사입니다

- ✦ 자신의 선언문에 직접 적어보기
- ✦ 성평등한 보육현장 속 영유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교사가 되기 위해 다짐하며 마무리



주요내용

- 영유아와 함께 생활하는 교사가 보여주는 행동과 모습이 영유아의 삶에도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됨을 설명함
- 영유아들에게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모든 사람은 동등한 권리와 책임, 역할이 있음을 알려주어야 함
- 성인의 무의식적인 언행(“남자가 왜 울고 있어. 남자는 씩씩해야 돼.,” “무슨 여자애가 그렇게 큰 소리로 우니?, 여자는 조심해서 걸어야 돼.” 등의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과 행동)은 유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더욱 주의함을 강조함
- 유아교육 기관의 교사들을 비롯하여 유아들에게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가정에서도 올바른 양성평등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안내함
- 오늘 교육도 중요하지만 영유아들과 함께 생활을 하기 때문에 더욱 교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함을 강조하여 설명함
- 오늘 강의를 통해 본인이 고쳐야 할 내용을 다시 회상해본 후 성평등한 교실을 만들기 위한 다짐식을 갖도록 함

- 간단한 질의 응답시간을 가짐
- 성평등한 교실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교사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자 노력해보기로 동기부여를 한 뒤 강의를 마무리함

TIP

- 잔잔한 음악과 함께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충분히 갖게 한 뒤 다같이 외치도록 함



보육교사 대상 강의 매뉴얼 참고자료

- 강경석·박연희, 「부모의 양성평등의식이 유아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미치는 영향」, 17(1), 한국아동교육학회, 2008
- 강혜원, 「역할놀이를 통한 양성평등교육이 유아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미치는 영향」, 인천대학교 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경북여성정책개발원, 『경상북도 유치원 (예비) 보육교사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개발 연구』, 2021
- 교육인적자원부, 『유아를 위한 양성평등교육활동 지도자료』, 2004
- 김송이·심자영, 『서울시 영유아 부모 및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성평등 의식 실태조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9
- 손제희, 『유아교사 양성평등 실천경도와 교육요구도에 관한 연구: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연구, 2022
- 서울시보육서비스지원센터, 『보육교사 젠더감수성, 보육교사 인력풀 기본교육자료집』, 2019
- 아영아,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성인지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 및 인권의식의 조절효과」, 『한국사회복지』, 2020,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51면, 79~98면
- 양미선 외, 『양성평등 어린이집 시범사업 모델연구보고서』, 육아정책연구소, 2020
- 이완정 외, 『영유아보육사업특정 성별영향평가』, 여성가족부, 2019
- 이옥경 외, 『부산지역 보육아동 성평등교육 체계구축 및 활용방안』, 부산여성가족개발원, 2011
- 윤미순, 「부모와 보육교사의 성역할 태도에 따른 영유아기 양성평등 교육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유해미·박은정·전지원, 『성평등 관점의 영유아 돌봄정책의 진단과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2019
- 최윤경·박은정·김보미·우석진, 『성인지 관점에서의 아동분야 돌봄경제 활성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2020
- 인구보건복지협회, 『보육교사를 위한 유아 성교육 매뉴얼』, 2011
- 정옥분, 『아동발달의 이해(개정판)』, 학지사, 2018
- 조유나·오선영, 「보육교사의 양성평등의식 및 실행수준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2(2),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학회, 2018, 25~245면

- 최윤정·정해숙·장희영·이현주, 『성평등한 진로교육 추진을 위한 실태 분석 및 정책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8
- 진명화·서현순, 「3, 4, 5세 유아의 놀이 선호도 놀이 참여 유형에서의 성유형성 비교 및 성역할」, 『유아교육연구』, 24(3), 한국유아교육학회, 2004, 141~162면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1 국가성평등보고서』, 2021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들을 위한 성인지 교육 교재』, 2020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생애주기별 양성평등의식교육 이야기』, 2011

도서

- 크리스티나 헨켈-마리토미치, 『스웨덴식 성평등 교육』, 홍재웅 옮김, 다봄, 2019
- 크리스티나 스피어스 브라운, 『핑크와 블루를 넘어서』, 안진희 옮김, 창비, 2018
- 로라 E. 버크, 『아동발달(제9판)』, 이종숙 옮김, 시그마프레스, 2014

보도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영유아 상품 성별구분, 성역할 고정관념 강화 개선 필요 의견표명」, 『아시아뉴스통신』, 2021. 05. 04.
- 「여자는 예쁘고, 남자는 힘이 세? 동요 '상어가족'도 못 피해간 편견」, 『베이비뉴스』, 2017. 12. 23.
- 「레고, '여아용·남아용' 구분 없앤다... '성 중립' 표방」, 『연합뉴스』, 2021. 10. 13.
-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영유아 교사 양성평등 교육」, 『전주매일신문』, 2022. 5. 22.
- 「"한국 성평등, 르완다보다 못한 108위" 다른쪽 선 10위 왜」, 『중앙일보』, 2019. 12. 22.
- 「삼성전자 월드컵 광고, 이란서 '성차별 논란」, 『조선일보』, 2018. 5. 29.
- 「여자답게? 딸이 받아온 어린이날 선물에 울해도 한숨」, 『한국일보』, 2020. 5. 6.
- 「서울시, 성평등 어린이 사전... 우리 아이 성차별 언어·행동 바꿔봐요」, 『미디어투데이』, 2020. 11. 20.

인터넷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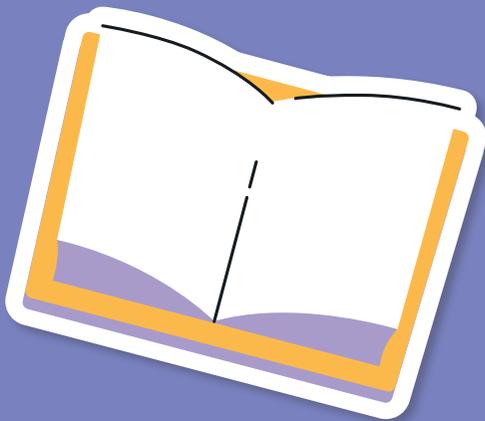
- 국가법령센터, 2022. 6. 24. 인출, (<https://www.law.go.kr>)
- 스튜디오 허프 STUDIO HUFF, 「이 유치원에는 여자아이 남자아이가 없다」, 유튜브 (<https://bit.ly/3DJSh3k>)
- 연합뉴스, 「'성차별 논란' 삼성전자 광고... 어떤 내용이길래? 」, 유튜브 (<https://bit.ly/3DlveFX>)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자료 (<https://bit.ly/3zrJksY>)
- 그림책 큐레이션 우따다 북클럽, 「딱따구리와 함께 하는 책장 평등 지수 자가진단 테스트」, 네이버블로그, 2022. 6. 22. 인출 (<https://bit.ly/3SRKa9c>)
- KBS News, 「글로벌 K 레고, 장난감 성별 구분 없앤다... '성 중립' 표방」, 유튜브 (<https://bit.ly/3SUiEYu>)
- 제주여성평등교육센터 홈페이지 (<http://jejuegen.kr>)
- 세계경제포럼,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성 격차 지수 (<https://bit.ly/3gXA2y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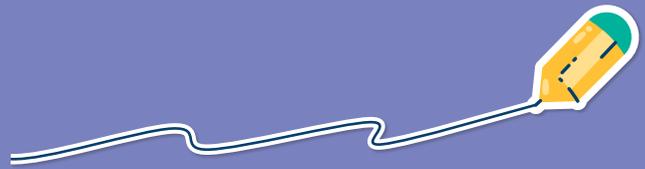
**문화관광
해설사 대상
강의 매뉴얼**

교육목표

- ✦ 스스로의 언행을 점검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갖춘 문화관광해설사가 된다.
- ✦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참여자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진 않은지 점검할 수 있다.
- ✦ 원치 않는 상황(촬영, 성희롱, 신체접촉)에 놓였을 때 대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 ✦ 내가 가진 성별 고정관념을 점검하고 고정관념을 벗어나기 위한 실천사항을 익힐 수 있다.
- ✦ 내가 가진 성별 고정관념을 깨닫고 성평등한 관점으로 제주를 알릴 수 있다.



교육내용



- 1 들어가기**
 - 교육 내용 소개
 - 강의 주제와 목차 설명
- 2 성인지 감수성 체크**
 - 내가 가진 박스(성별 고정관념) 알아채기
 - 성별 고정관념이란?
- 3 문화관광 해설사로서 나의 역할**
 - 사람들에게 어떠한 해설사로 기억되고 싶은지 생각하기
 - 나의 성차별이 해설에 반영될 수 있음을 인지하기
- 4 효과적인 해설을 위한 방법**
 - Opening Ment와 참여자 소개
 - 효과적인 해설을 위한 팁(Tip)
 - 외모 품평 : 칭찬도 상대에 따라 불편할 수 있습니다
 - 나만의 특별한 Storytelling: 보다 성평등한 storytelling 작성법
- 5 서로 존중하는 문화관광해설사**
 - 어떤 호칭을 사용하시나요?
 - 이런 상황 불편합니다.
- 6 성평등을 위한 실천**

1

들어가기

- ✦ 교육 내용 소개
- ✦ 강의 주제와 목차 설명



주요내용

- 제목(목차)에 담긴 의미를 짧게 짚으며 문화관광 해설사가 제주를 어떤 관점으로 해설하느냐에 따라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함
- 문화관광 해설사로서 만나는 참여자들이 다양한 사람(성별, 연령, 인종, 종교, 학력, 지역, 경제상황 등)들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성별 고정관념이 그들에게 불편을 줄 수도 있고 이것은 제주나 한국에 대한 전체적인 이미지와 만족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주의사항

- 강의를 시작할 때 교육 참여자와 강사 간의 라포형성이 중요함
- 일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기보다 아이스 브레이킹 등을 활용, 교육장의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드는 게 필요함

2

성인지 감수성 체크

- ✦ 내가 가진 박스(성별 고정관념) 알아채기
- ✦ 성별 고정관념이란?



주요내용

- 그림을 보며 ①, ②, ③의 성별은 무엇일지 유추해 보도록 함
- 의상만 보고 ①번과 ③번은 남성, ②번은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음
- 그러나 직업과 성별은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이야기함
- 남자다운 직업, 여자다운 직업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역할 고정관념임
- 성별 고정관념은 '남자는 ~하다, 해야 한다', '여자는 ~하다, 해야 한다'와 같은 성별에 따른 행동이나 태도 관련 부분에서 고정된 기준을 가지고 사회적 역할을 기대하는 것임
- '여성스럽다, 남성스럽다'라는 일명 성별 고정관념(젠더박스)에서 벗어나야 참여자들에게 불편하지 않고 편안한 해설이 가능함을 인식시킴
- 최근 사회적인 성별 고정관념 변화에 대한 이슈를 이야기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야 하는 직업인 만큼 함께 변화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함
- 오늘 교육목표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성인지 감수성을 갖춘 문화관광 해설사로서의 역할을 강조함

TIP

- 문화관광 해설사의 연령대가 높은 점을 고려해 교육 참여자분들의 입장을 함께 이야기 해주어야 교육에 대한 반감을 줄일 수 있음
- 오늘 이야기가 어찌면 이상하게 들리고 낯설게 들릴 수 있는 게 당연하지만, 그렇게 낯설게 보는 것으로부터 성평등 인식을 키워나갔으면 함



제주도민 성평등 의식에 대한 참고자료

- 2019년 제주 거주 만 19~64세 미만 성인 606명, 공무원 452명, 총 1,058명 대상으로 ‘제주도민 성평등 의식 실태조사’ 연구를 진행함
- 2019년 도민 응답자는 2016년 전국/제주보다 주도적 책임역할에 대한 성별고정관념은 완화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거나 돌봄노동의 성별고정관념과 직종성별분리에 대한 고정관념은 오히려 강화된 경향을 보여 관련 성평등 의식 제고가 필요함
- 성별로는 도민과 공무원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성평등 의식 수준이 높음
- 도민 응답자는 여남 모두 연령이 낮을수록 거의 모든 문항의 성평등 의식 수준이 높아 높은 연령대의 성평등 의식 제고가 필요함
- 그러나 20대 여성과 남성 모두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은 성평등 의식 수준을 보였으나 동시에 20대에서 가장 큰 성별 격차가 많이 나타나 20대 남성의 성평등 의식 제고가 필요함
- 제주 도민/공무원 모두 ‘남성 소득 우위(공무원)을 제외하고 모든 문항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성평등 의식 수준을 보임
- 도민 응답자는 ‘여초 직종 분리’(2.55점), ‘남초 직종 분리’(2.56점), 여성의 자녀돌봄우선(2.64점), 제사의례는 주로 남성 담당(2.69점) 등 문항에서, 공무원 응답자는 ‘여초 직종 분리’(2.51점), ‘남초 직종 분리’(2.52점), ‘남성의 돌봄 자립 중요’(2.99점) 문항에서 가장 낮은 성평등 의식 수준을 보여 직종성별분리와 제사의례, 돌봄의 성역할에 대한 성평등 의식 제고가 필요함
- 도민 응답자는 ‘강한 남성성’(여 3.04점, 남 2.70점), ‘여성 제사음식 담당’(여 3.04점, 남 2.71점), ‘남성 제사의례 담당’(여 2.84점, 남 2.54점)에서 0.3점 이상 가장 큰 성별 격차를 보여 남성성 문화규범과 제사의례와 제사음식 문화에서 남성의 성평등 의식 제고가 필요함

출처: 이해음·신승배, 『제주도민 성평등 의식 실태조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2019

MEMO



제주지역 문화 관광분야 성평등 인식

- 문화관광해설사의 성평등 의식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성평등 관련하여 다섯 개의 세부 질문을 하였음. 첫 번째로는 '가족의 생계는 주로 남성이 책임져야 한다'에 대하여 평균 2.34점이 나와서 보통보다 조금 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두 번째로는 '여성은 자신의 직장 생활보다는 어린 자녀를 돌보는 것을 더 우선시해야 한다'에 대하여 평균 2.76점이 나와서 보통보다 그렇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세 번째로는 '아이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잘 키울 수 있다'에 대하여 평균 3.08점이 나와서 보통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음. 네 번째로는 '맞벌이 부부라도 집안 일은 아내가 주로 해야 한다'에 대하여 평균 1.85점이 나와서 별로 그렇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다섯 번째로는 '남성이 여성 밑에서 일하는 것은 불편하다'에 대하여 평균 2.15점이 나와서 별로 그렇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주로 성역할 고정관념이 보통 수준보다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문화관광해설사의 성평등 의식에 대한 5개의 하위문항에 대한 평균은 2.44점으로 보통보다 조금 더 성평등 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다만 '아이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잘 키울 수 있다'라고 하는 성평등하지 않은 인식이 보통 정도로 다른 문항보다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성별에 있어서는 '가족의 생계는 주로 남성이 책임져야 한다' 및 '맞벌이 부부라도 집안 일은 아내가 주로 해야 한다', '남성이 여성 밑에서 일하는 것은 불편하다'에 대하여 남성이 여성보다 동의하는 정도가 유의미할 정도로 더 높게 나타났음. 연령에 있어서는 '아이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잘 키울 수 있다'와 '남성이 여성 밑에서 일하는 것은 불편하다'에 대하여 70대 이상이 동의하는 정도가 유의미하게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이에 대한 동의 정도가 높은 경향이 있었음. 반면 최종학력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음

출처: 선민정·좌동열·이연화, 『제주지역 문화관광해설사의 실태와 여성 일자리 활성화 방안』, 제주여성가족연구원, 2020

문화관광해설사의 성평등 인식 1점 전혀 그렇지 않음 ~ 5점 매우 그러함 (단위: 점)

가족의 생계는 주로 남성이 책임져야 한다	2.34
여성은 자신의 직장생활보다는 어린 자녀를 돌보는 것을 더 우선시해야 한다	2.76
아이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잘 키울 수 있다	3.08
맞벌이 부부라도 집안 일은 아내가 주로 해야 한다	1.85
남성이 여성 밑에서 일하는 것은 불편하다	2.15

문화관광해설사의 성평등 의식

(단위: 명/%)

구분	가족의 생계는 주로 남성이 책임져야한다			여성은 자신의 직장생활보다는 어린 자녀를 돌보는 것을 더 우선시해야한다			아이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잘 키울 수 있다			
	사례수	평균	t/F	사례수	평균	t/F	사례수	평균	t/F	
전체	144 (100.0)	2.34		144 (100.0)	2.76		144 (100.0)	3.08		
성별	여성	109 (100.0)	2.17	12,319	109 (100.0)	2.72	0,354	109 (100.0)	2.98	3,043
	남성	35 (100.0)	2.89		35 (100.0)	2.86		35 (100.0)	3.40	
연령	40대 이하	15 (100.0)	1.80	1,654	15 (100.0)	2.80	1,234	15 (100.0)	2.67	5,827
	50대	52 (100.0)	2.31		52 (100.0)	2.52		52 (100.0)	2.63	
	60대	56 (100.0)	2.50		56 (100.0)	2.89		56 (100.0)	3.45	
	70대 이상	21 (100.0)	2.38		21 (100.0)	2.95		21 (100.0)	3.52	
최종 학력	전문대 졸업 이하	52 (100.0)	2.44	0,360	52 (100.0)	2.92	1,551	52 (100.0)	3.08	1,593
	4년제 대학 졸업	72 (100.0)	2.29		72 (100.0)	2.74		72 (100.0)	3.21	
	대학원 이상	20 (100.0)	2.25		20 (100.0)	2.40		20 (100.0)	2.65	
구분	맞벌이 부부라도 집안 일은 아내가 주로 해야한다			남성이 여성 밑에서 일하는 것은 불편하다						
전체	144 (100.0)	1.85		144 (100.0)	2.15					
성별	여성	109 (100.0)	1.66	24,930	109 (100.0)	2.02	7,853			
	남성	35 (100.0)	2.43		35 (100.0)	2.57				
연령	40대 이하	15 (100.0)	1.67	0,800	15 (100.0)	1.73	4,420			
	50대	52 (100.0)	1.75		52 (100.0)	1.87				
	60대	56 (100.0)	1.95		56 (100.0)	2.38				
	70대 이상	21 (100.0)	1.95		21 (100.0)	2.57				
최종 학력	전문대 졸업 이하	52 (100.0)	1.94	0,930	52 (100.0)	2.27	0,658			
	4년제 대학 졸업	72 (100.0)	1.75		72 (100.0)	2.06				
	대학원 이상	20 (100.0)	1.95		20 (100.0)	2.20				

3

문화관광 해설사로서 나의 역할

- ✦ 사람들에게 어떠한 해설사로 기억되고 싶은지 생각하기
- ✦ 나의 성차별이 해설에 반영될 수 있음을 인지하기



주요내용

- 자기 PR의 시대! 그만큼 제주를 여행한 관광객들 또는 도민들의 여행 후기가 다양한 곳에 게시되고 있음. 문화관광 해설사와 함께하는 여행 후기 또한 많은 곳에서 볼 수 있음
- 문화관광 해설사로서 내가 만난 참여자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함
- 또한, 내가 어떤 관점으로 이야기를 전달했느냐에 따라 참여자들에게도 다르게 기억될 수 있음을 강조함
- 평소 내가 성차별적인 말을 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며 이런 생각이 해설할 때 반영되고 있진 않은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함
- 일상생활 속 성차별적인 생각과 말들이 해설에 반영이 될 수 있음 설명함

TIP

-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깨닫게 해줌
- 남자답게 여자답게가 아닌, 나답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존중하기

4

효과적인 해설을 위한 방법

- ✦ Opening Ment 와 참여자 소개
- ✦ 효과적인 해설을 위한 팁(Tip)
- ✦ 외모 품평:
칭찬도 상대에 따라 불편할 수 있습니다
- ✦ 나만의 특별한 Storytelling:
보다 성평등한 storytelling 작성법



주요내용

- 해설사가 효과적인 해설을 위해 사용하는 opening ment는 칭찬, 공감, 유머, 질문, 게임, 퍼포먼스, 뉴스, 키워드 등 다양한 기법이 있음
- 이 중에서 유머, 질문, 칭찬 세 가지만 집중적으로 살펴보자 함
- 먼저 유머, “ 오늘 제가 꽃밭에 온 기분이에요~ ” 어떻게 들리는지 묻고 어떤 대상에게 한 말인지 유추해 볼 수 있도록 함. 가장 쉽게 많이 사용하는 유머는 이렇듯 상대를 성적대상화한 유머들이 많음. 그러나 이런 유머는 위험한 유머가 될 수 있음
- 두 번째 질문, 개인사를 묻는 질문과 ‘남자는 ~야 한다, 여자는 ~야 한다’는 성차별적인 질문. 해설을 위해 만난 분들은 개인적으로 만난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공적으로 대해야 함
- 개인사를 묻는 질문과 성차별이 담긴 이러한 질문들은 참여자들로 하여금 많은 불편함을 느끼게 함
- 세 번째 칭찬, 이런 칭찬 어떻게 들리는지 묻고 뒷장에서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함

TIP

- ‘유머’에 대한 사례는 집필자가 실제 겪은 사례임
- 여성들만 있던 상황에서 해설사가 이런 말을 하였고 아무도 웃지도 않고 그렇다고 어떤 대항을 하지도 않는 상황이었음. 여기에서 왜 웃지 못했으며 왜 대항하지 못했는지 같이 이야기 해봐도 좋음
- 사례는 각자 경험한 사례로 변경해도 좋음

주의사항

- 교육 참여자들이 듣기 너무 거북한 사례를 제시하지 않도록 주의
- 적극적인 유머 사용 vs 위험한 유머 사용에 대해 짚어줄 필요성 있음



주요내용

- 제시된 칭찬이 어떻게 들리는지 질문 통해 참여자들의 생각을 들어봄
- 제시된 칭찬은 “여자는 예뻐야 한다. 남자는 운동을 통해 근육을 키워야 한다.” 등의 성차별적인 칭찬임을 인식시켜 줌
- 칭찬은 대상에 따라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으며 특히 성차별적인 칭찬은 불편함을 주는 칭찬이 될 수 있음
- 가장 쉽게 하는 칭찬으로 외모에 대한 칭찬(외모품평)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이러한 칭찬은 더 이상 칭찬이 될 수 없음을 상기시키며 외모품평이 아닌 상대의 능력에 대한 칭찬을 할 수 있도록 함
- 칭찬은 외모나 성별고정관념이 담긴 칭찬 외에 능력에 대한 칭찬이나 태도에 대한 칭찬 어떤 노력에 대한 칭찬 등 다양한 칭찬의 기술이 있음을 안내함

TIP

- 활동: ‘칭찬의 기술’ 포스트잇에 옆에 있는 사람을 칭찬하는 글을 적도록 함
- 단, 외모에 대한 칭찬은 제외하고 상대방의 능력이나 태도에 대한 칭찬을 적고



동영상 참고자료



‘성별뿐 아니라 상대의 피부색, 나의 피부색에 따라서도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내용 설명 시 ‘살색이 차별이라는 인권위의 결정 자료 ‘차별의 발견’ 동영상을 활용해도 좋음

출처: 지식채널e, 「모든사람 2부」, 유튜브 (<https://bit.ly/3Do85Y1>)



성차별 언어와 성평등 존중 언어

직장에서 무심코 사용하거나 듣게 되는 성차별·성희롱 언어는 무엇일까?

- 광주시가 시청 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대표적인 차별언어 17개를 선정하고 이를 성평등·존중 언어로 바꿔 사용하기 챌린지 영상을 제작했음
- 영상은 지난 8월 전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에서 무심코 사용하거나 듣는 성차별·성희롱 언어 찾아 보기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해 선정한 17개 차별언어를 주제로 삼았음

공무원들이 선정한 성차별 언어	성평등 존중 언어
남자는 말이야~ 여자는 말이야~	성별 고정관념을 강요하지 마세요. 개성을 인정해 주세요.
애인 있어? 언제 결혼할 거야? 애는 안낭아?	관심의 표현이 아니라 사생활 간섭입니다. 사적 영역의 경계를 지켜주세요.

공무원들이 선정한 성차별 언어	성평등 존중 언어
이건 남자가 해야지! 이건 여자가 해야지!	남자의 일과 여자의 일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주세요'라고 말해주세요.
남자가 짜짜하게, 쪼잔하게, 찌질하게! 여자가 애교도 없이, 무뚝뚝하고, 잘못지도 않고!	'남성다움', '여성다움'을 강요하며...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때 조롱하고 비난하지 마세요. '나다움'의 특성을 인정해 주세요.
힘든 일(현장 업무, 출장 등)은 남자가 해야지.	힘든 일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입니다. 힘든 일은 우리 다 같이 순번을 정해서 하는 건 어떨까요?
○○씨! 여기 차한 잔주세요.	업무 외적인 부탁은 '미안합니다'라며 정중히 말해주세요. 그리고 가능한 손님 응대는 본인이 직접 하면 어떨까요?
여자 차곤 일 잘해. 여자가 될 그렇게 성공하려고 애쓰나!	능력은 성별과 상관없습니다. 남성과 여성을 비교하지 말고 누구나 자신의 잠재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해주세요.
우리과는 여직원이 필요해. 나는 여직원 보다 남직원과 일하고 싶어	남직원과 여직원을 구분하지 말고 '자기몫을 다하고 협력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어요'라고 말해주세요.
술 한 잔도 못 해서 사회생활 잘 할 수 있겠어?	음주 여부나 주량으로 사회성을 평가하지 말아주세요. '사회 생활을 잘 하려면 무엇보다 소통과 협력이 중요해요'라고 말해주세요.
여직원들은 임신이나 아이 양육 때문에 업무에 지장 있는 거 아냐? 남직원들 일이 많아져서 힘들어.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가정 내 돌봄 노동은 여성의 몫인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는 가능한 근무시간에 마무리하고 가사는 함께 하는 게 어떨까요?'
외모 좀 꾸미고 다녀! 살 좀 빼! 왜이리 말랐어!	업무에만 집중하고 싶습니다. 얼굴 지적, 몸매 지적 그만 하시고 개인의 자질을 칭찬해주세요.
옛날 같으면 여자들이 살림이나 했을 텐데. 요즘 여자들 권위가 높아졌어.	시대가 변했습니다. 성차별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남녀 모두에게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니, 역량 있는 직원들이 많아졌어'라고 말해주세요.
이젠 재미있는 농담 한마디도 못한다니까. 무슨 말만 하면 성희롱 이래!	그 농담, 혼자 웃는 거 아세요? 누군가를 성적인 대상으로 평가하는 말은 농담이 아니라 성희롱입니다.
어느 부서 누구랑 사귀어 보는 건 어때?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쟁취해!	사랑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고감을 나누는 것입니다. 연애는 각자 알아서 합니다. 참견하지 말아주세요.
예쁘다, 멋지다 칭찬도 못 하나!	누군가의 외모를 칭찬하는 것은 당사자뿐 아니라 동료들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업무 환경을 악화 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아야~ 가족 같아서 스킨십도 하는 거지.	가족은 집에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친밀감은 스킨십이 아니라 존중과 평등으로 형성됩니다.
상사 옆에 앉아서 술 한잔 따라드리지! 술은 어린 사람이 따라야 제맛이지!	술자리 지정, 술 따르기 강요는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각자 편한 곳에 앉아서 술은 먹고 싶은 사람만 드세요'라고 말해주세요.

출처: 「광주시청 공무원들이 뽑은 성차별 언어들」, 『광주드림』, 2020. 11. 17.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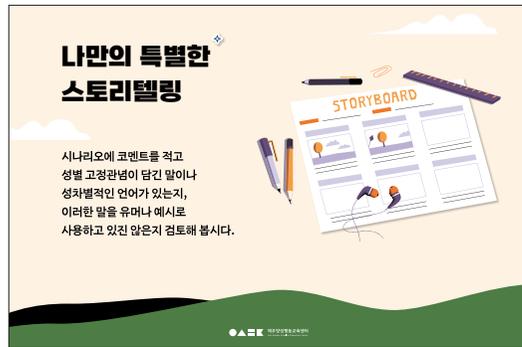
- 어느 숲 해설사의 꽃자왈 이야기: 나무뿌리는 원래 땅속 깊이 흙 속에 있어야 하는데 꽃자왈은 지형 특성상 나무가 흙 속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넓게 나무뿌리를 퍼져나가도록 하여 작은 돌이나 흙을 붙들고 자신의 몸을 의지하며 버티고 있어 사람처럼 근육이 튀어나오듯 나무뿌리가 둥글둥글하지 않고 위로 올라오는 특징이 있음
- 만약, 이렇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숲 해설사가 앞에 있는 참가자를 가리키며 “근육이 나무뿌리보다 못하시네요!”라고 했다면 적절한 해설이 되지 못함
- 참여자가 앞에서는 그냥 웃어넘길 수도 있으나 이런 해설은 참여자로 하여금 굉장히 불편함을 주는 잘못된 비유가 될 수 있음
- 해설을 할 때 사실을 객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유머를 사용할 경우 성적 대상화하는 유머, 성차별적인 유머, 외모품평과 관련된 유머는 지양해야 함

TIP

- 해설을 들었을 때 불편함을 줬던 해설이 있다면 다른 예시를 사용해도 좋음

주의사항

- 위 사례는 집필자가 강의를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 개인 방송을 보고 인용한 사례임
- 위 사례를 이용해 강의할 경우 ‘만약 이런 해설을 한다면~’이라는 예시로 활용 권유함



주요내용

- 관광분야 해설사의 경우 시나리오가 주어지기도 하지만 각자 시나리오를 작성하기도 함
- 해설을 할 때 나만의 시나리오로 만들 필요성이 있음
- 보다 재밌고 효과적인 해설을 하기 위해 시나리오에 충실하기. 시나리오에 충실하기 위한 방법으로 '옥탑방의 문제아들'에서 이승규 교수가 밝힌 백지 복습법을 추천함
- 해설을 준비할 때 백지에 시나리오를 생각나는 대로 적어봄
- 또한 해설하면서 사용할 코멘트도 미리 예상하여 시나리오 옆에 작성해 봄
- 나의 시나리오에 성차별적인 이야기는 없는지 스스로도 점검해보고 주변 동료들과 함께 시나리오를 검토함
- 이렇게 작성된 시나리오로 실제 해설하는 것처럼 연습한 후 해설을 하게 되면 내가 작성한 시나리오의 큰 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나만의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으며 해설 시 무의식중에 나오는 성차별적인 언행을 예방할 수 있음

5

서로 존중하는 문화관광해설사

✦ 어떤 호칭을 사용하시나요?

✦ 이런 상황 불편합니다



주요내용

- 해설을 하다 보면 원치 않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해설사라는 직업 특성상 참여자들의 컴플레인이 걱정되어 참고 넘기는 경우가 대다수임
- 해설을 할 때 참가자들 가장 앞에서 해설을 하고 인솔과정에서도 가장 앞장서서 가기 때문에 참여자들이 동의 없이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하는 경우가 많음
- 또한 동행과 인솔하는 과정에서 해설사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하는 등, 해설사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어를 사용하는 참가자도 있음
-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교육 참가자의 의견이나 경험을 들어봐도 좋음
- 해설을 시작하기 전, 오늘 일정에 대한 안내라든지 오프닝 멘트를 할 때 잠시 위와 같은 공지사항을 이야기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함

주의사항

- 최근 불편함을 주는 참여자가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함. 그러나 해설사의 보다 나은 근무환경을 위해 참여자들에게 주의사항을 이야기하며 환기시켜 줄 필요가 있음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환경

-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환경은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인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관광객으로부터의 성희롱, 폭력, 무례한 행동 등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다만 이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은 정도가 나온 것이 아니라 별로 그렇지 않은 정도로 나타나서 종종 위험 상황에 노출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치도 요구될 것임
- 성희롱 등 불쾌하고 위험한 상황에 처해짐
 - 원치 않는데 사진에 찍히거나(사례 5), 음주 후 방문한 관광객이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는 등 불쾌한 상황에 처해지는 경우도 있었음(사례 13), 특히 음주를 한 관광객에 대해서도 해설을 해야 하는 상황이나 이들로부터 컴플레인을 받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는 모습이 보여서 문화관광해설사가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해 보임
 - (사례5, 여성 문화관광해설사) '사진을 찍읍시다' 할 때 분위기상 속으로는 정말 찍고 싶지 않는데 찍어야 될 때가 있어요.
 - (사례13, 여성 문화관광해설사) 000에 한참 꽃이 필 때였던 것 같은데 한잔씩들 얼큰하게 걸치시고 오셨더라고요. 남자분들 한 60대 정도 되신 분들 같은데 다섯분 정도가 들어오셨는데, 둘러보시고 해설 필요하시면 말씀하시면 해설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하는 말이 해설은 필요 없고 예쁜 아줌마만 있으면 됐지 이런 식으로 얘기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탁 받아친 게 요즘 그런 말씀 함부로 하시면 큰일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도 얘기하면서도 이거 혹시 도에다가 컴플레인을 하거나 하진 않겠지 이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런 게 혼자 거기 있으니까 술 한잔 하시고 오시는 분들은 그걸 약간 농담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진 모르겠지만.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환경

1점 전혀 그렇지 않음 ~ 5점 매우 그러함 (단위: 점)

대기장소는 쾌적하고 공간이 충분하다	3.17
대기하는 시간동안 해설 외의 다른 업무를 해야 한다	1.78
관광객 등으로부터 성희롱 등과 같은 언어나 행동에 노출되기도 한다	1.90
관광객 등으로부터 폭력적인 언어나 행동에 노출되기도 한다	1.90
관광객 등으로부터 무례한 행동을 요구받기도 한다	1.88
해설 근무를 하면서 위험에 노출되기도 한다	2.08

출처: 선민정·좌동열·이연화, 『제주지역 문화관광해설사의 실태와 여성 일자리 활성화 방안』, 제주여성가족연구원, 2020

6

성평등을 위한 실천



- 마무리 활동. 성별 고정관념이 담긴 말을 찾아 빈칸고 만들기
- 정답: ① ⑤ ⑨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참고자료

‘학부형, 저출산, 양자, 유모차, 미숙아, 첩, 유흥접객원, 편부·편모...’

-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성평등 주간(1~7일)을 맞아 법령·행정 용어와 관공서 서식 등에 남아있는 성차별적 언어를 시민 제안으로 바꾼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시즌3’를 1일 발표함
- 시민들은 경찰의식규칙과 해양경찰의식규칙 등에서 ‘학생의 보호자’를 뜻하는 ‘학부형’을 ‘학부모’로 개선하자고 제안함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 법률 명칭에도 포함된 ‘저출산’은 ‘저출생’으로 바뀌 부르자고 함. 출산율 감소와 인구문제 책임이 여성에게 있다고 오인된다는 이유임
민법 등의 ‘자(子), 양자(養子), 친생자(親生子)’는 딸까지 포함하는 ‘자녀(子女), 양자녀(養子女), 친생자녀(親生子女)’로 바꾸자는 제안이 많았음.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서 쓰이는 ‘미혼’도 ‘비혼’으로 고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왔음
- 시민들은 ‘유모차’를 ‘유아차’로, ‘미숙아’는 ‘조산아’로, ‘자매결연’은 ‘상호결연’으로 각각 바로잡자고 제안하였으며, ‘편부·편모’ 역시 차별적이어서 ‘한부모’로 고치자는 의견도 있음
- 식품위생법 시행령의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이라는 표현은 성희롱과 성착취를 합법화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군인사법 시행규칙의 ‘첩을 둔 사람’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이유로 아예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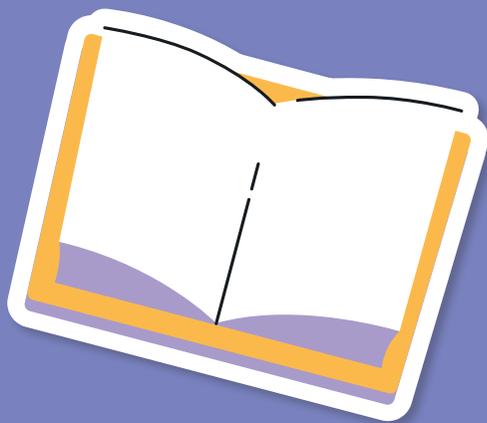
출처 : 『“학부형→학부모, 미혼→비혼”...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연합뉴스』, 2020. 9. 1.



양육자 대상 강의 매뉴얼

교육목표

- ✦ 여성다움, 남성다움이 아닌 '나다움'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 ✦ 나다움의 중요성을 알기 위해, 성인지 감수성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한다.
- ✦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나다운 아이가 자라는 성평등한 가족의 모습을 설계할 수 있다.



교육내용



1

들어가기

- 강의를 듣게 된 각자의 이유와 목표 공유
- 성평등교육의 필요성과 동기 부여
- 강의 주제와 목차 안내

2

성역할이라는 거짓말

- 성역할 고정관념 깨트리기
- 성역할이 가로막는 아이의 가능성

3

성인지적으로 양육환경 훑어보기

- 성인지 감수성이란 무엇인가
- 부모 양성평등의식, 성인지 감수성의 중요성
- 성인지적으로 아이의 주변환경 점검하기(학교, 또래문화, 학원, 인터넷 등)
- 성인지적으로 가정환경 점검하기: 우리 집 성평등 정도 체크리스트

4

성평등한 양육을 위한 10가지 실천약속 만들기

- 성평등한 10가지 실천약속 설계하기
- நா다음의 중요성 제고하기

5

마무리

- 왜 지금, 성평등 교육인지에 대한 마무리 설명
- 가정 내 성평등 문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함을 동기부여 하며 마무리

1

들어가기

- ✦ 강의를 듣게 된 각자의 이유와 목표 공유
- ✦ 성평등교육의 필요성과 동기 부여
- ✦ 강의 주제와 목차 안내



주요내용

- 강의 제목을 설명하며 나다운 아이가 자라는 것과 성평등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 것 같은지 질문을 던져보며 강의를 시작함
- 본 강의를 통해 양육자가 무엇을 얻어가고 싶은지에 대해 물어보고, 강의자는 무엇을 전해주고 싶은지에 대해 설명하며 아이가 그저 '나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족의 조건을 설계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강의를 시작함
- 강의 전체의 목차를 설명하며 왜 성평등이 중요한지 강조함과 동시에 성역할과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알아볼 것을 주지시킴
- 그 이후에 우리 아이의 주변 환경은 어떠한지 살펴보며 아이가 그 아이가 본래 가지고 있던 나다움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인지 점검해볼 것을 설명함
- 이후 가정에서 아이가 나다운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어떻게 가정 환경과 가족 문화를 설계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 점검하며 성평등한 가족을 설계하기 위한 10가지 실천약속을 만들고 공유할 것이라고 안내함

2

성역할이라는 거짓말

✦ 성역할 고정관념 깨트리기

✦ 성역할이 가로막는 아이의 가능성



주요내용

- 아이를 임신하였을 때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딸이예요? 아들이예요?’가 아닌지, 공감을 얻어내며 강의를 시작함
- 딸에게 선물하는 것과 아들에게 선물하는 것이 왜 물건을 사는 시장에서부터 구분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사교의 궁금증을 유발함
- 성역할 고정관념의 개념을 설명하며 이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동될 수 있는 문화적 가치라는 것을 설명함

TIP

- 부드러운 분위기로 진행하기 위해 강연을 듣는 양육자들이 많이 들어봤을 법한 말과 많이 경험했을 법한 경험들을 추측하며 질문을 던짐. 이를 통해 강의 전체적으로 공감을 많이 얻어가며 강연을 시작하고자 함



아이들 성별에 관한 참고자료

<남자아이가 아니라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박한아 작가 인터뷰 일부 발췌

- “딸이에요, 아들이예요?” 임신부들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성별을 알고 나면 그에 따른 고정 관념이 덧붙여지죠. ‘딸이라서 암전한가 보네’, ‘아들은 원래 좀 과격해’ 과연 딸, 아들이라는 성별로 아이의 특성을 재단할 수 있는 걸까요?
- 아이를 가졌을 때부터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이 “딸이에요, 아들이예요?”였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구나 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아이를 막상 낳고 기르다 보니까 사실 딸과 아들이라고 모든 아이들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게 잘 맞지 않을 때가 많더라고요. 모든 아이, 여자 아이라고 해서 암전하고 말을 빨리하고 이런 게 아니고 남자아이라고 해서 굉장히 과격한 놀이를 좋아하고 숫자를 잘 세고 이런 게 아니듯이, 그런 면들을 제가 많이 느꼈기 때문에..
- “여자와 남자는 다르다. 아니 우리 모두는 다르다. 문제는 그 다름의 뿌리를 성별이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보기에 우리는 각자 너무도 다르고 다양한 조건들 속에서 존재한다는 것 아닐까? 한 사람을 그 사람으로 만드는 건 엄청나게 복잡한 함수식이다. 한 사람을 구성하는 수많은 카테고리 중 하나를 골라, 그게 곧 그 사람의 전부인 양 말하는 것은 너무나 게으른 태도다. 그것도 이제 막 태어나 세상을 배워나가고 있는 이 신인류들에게는 더더욱 말이다.”

출처: '세상의 모든 작은 사람들이 나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한국일보』, 2019. 9. 2.



시몬 드 보부아르, 『제2의 성』 참고자료

“여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자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 『제2의 성』에 나온 문구로 페미니즘 정신의 시초와 같은 문구이며 시몬 드 보부아르의 사상 전체를 요약해주는 말이다. 이 말은 제2의 페미니즘 물결을 촉발시키고 주도한 계기를 마련함
- 여자로 만들어진다는 것, 이것은 여성이 남성들의 생각과 문화 때문에 사회적인 타자로 만들어졌다는 뜻임. 보부아르는 여성을 사회의 주체가 아닌 타자로 만든 남성을 단순히 비판하기보다는 생물학, 사회학, 철학, 정신분석학, 신학 등의 다양한 이론을 바탕으로 원인을 명쾌하게 분석하여, 여성 권리의 당위성을 밝힘

출처: 시몬 드 보부아르, 『제2의 성』, 을유문화사, 2016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참고자료

- 성역할이란 어떠한 사회 내에서 여성과 남성에 따라 적합하다고 규정하는 가치, 인성, 태도, 행동 양식과 같은 것으로 한 문화권 안에서 성별을 구분시키는 사람들 사이의 합의된 관념임
- 성별에 따른 역할과 특성을 경직된 시각에서 이해하게 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 융통성 있게 적응하지 못하고 특정 상황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고정화된 성역할 반응을 하는 등 개인의 창의적인 사고와 행동을 제한할 수 있음
- 올바른 성역할을 인식하는 유아들이 대인 관계가 원만하며 또래에게 인기가 많고 적응을 잘하며 자신의 잠재력과 역량을 더 개발하고 성취 지향적이며 사회적으로 유능한 것으로 나타남
- 융통성 있는 성역할 태도를 가진 유아는 자신의 성과 일치하는 놀이방식이나 놀이친구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과 상반되는 성의 것도 선택하여 사회적 능력 발달에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았음
- 성역할을 형성하는 데에는 어느 한 가지 요인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유아를 둘러싸고 있는 부모, 형제 및 또래, 교육적 경험, 대중매체, 사회문화적 분위기 등 생물학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그 중에서도 부모는 자녀에게 주요한 타자로 자녀의 성역할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침

출처: 고영실 박용한,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 어머니의 일-가정 양립과 유아의 성역할 고정관념의 관계」, 『열린부모교육연구』, 12(2), 열린부모교육학회, 2020

- 성역할 고정관념(gender-role stereotypes)은 성별에 따라 바람직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과 태도를 구분하여 행동의 표출, 몸의 자세, 언어적 표현 등을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으로 구분하는 성역할에 대한 신념을 말함
-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별에 따라 분류되고 다른 방식으로 교육됨. 가정이나 학교, 사회에서 아이를 대할 때, 성별에 따라 다른 반응과 기대를 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성역할 고정관념이 형성됨. 성역할 고정관념은 일생을 거쳐 지속 되며, 사회 어디에나 있으므로 성역할 고정관념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출처: 이영아,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성인지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 및 인권의식의 조절 효과」, 『학교사회복지』, 51,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2020

MEMO

3

성인지적으로 양육환경 톺아보기

- ✧ 성인지 감수성이란 무엇인가
- ✧ 부모 양성평등의식, 성인지 감수성의 중요성
- ✧ 성인지적으로 아이의 주변환경 점검하기
(학교, 또래문화, 학원, 인터넷 등)
- ✧ 성인지적으로 가정환경 점검하기:
우리 집 성평등 정도 체크리스트

09 - 10

성인지 감수성

일상 생활 속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내는 **민감성**

성별에 따라 다르게 요구되는 것이 **차별과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느끼는 감수성**

이들 해결하고자 하는 관심과 태도!
매일의 삶 속에서 꾸준히!

출처: 서울YWCA, 한국여성영양교육진흥원, 미디어로 만나는 성평등, 2022

성인지 감수성 사전 체크리스트

양육자인 본인의 성인지감수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성인지 감수성 체크리스트” 작성해봅시다.

주요내용

-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설명하며 성별 불평등에 대한 민감성이라는 것을 짚어줌
- 또한 이 성인지 감수성은 매일 삶 속에서 꾸준히 필요한 것임을 강조함

TIP

- 성인지 감수성, 성인지적 관점, 양성평등의식 모두 ‘성별을 구분하거나 성별의 차이를 두는 것이 성별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식하는 관점이자 감수성이며 의식을 말한다’는 것을 짚어줄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성인지적 관점(gender perspective)

- 성별 불균형 상황을 인식하고 그 안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내는 민감성을 말함
- 여성과 남성이 생물학적, 사회문화적 경험의 차이에 의해 다른 이해나 요구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특정 개념이 특정 성에 유리하거나 불리한지, 성역할 고정관념이 개입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검토, 성찰하는 태도를 뜻함

출처: 서울YWCA, 『미디어로 만나는 성평등』, 2020

MEMO



'성인지 감수성 사전 체크리스트'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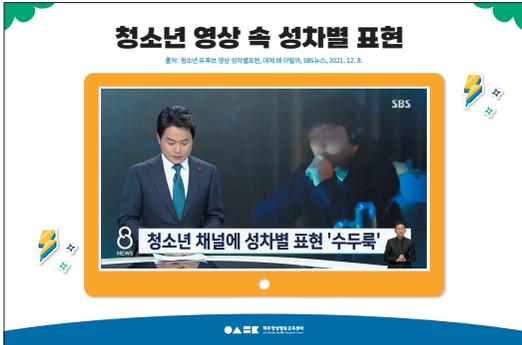
<성인지 감수성 체크리스트> 나의 성인지 감수성은 얼마나 될까??

다음은 양육자 본인의 평소 성인지 감수성을 파악하기 위한 체크리스트입니다.

아래 문항을 잘 읽고, 자신과 일치하는 모습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실은...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	여자 아이는 남자 아이보다 원래 공감능력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2	남자 아이가 성(性)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3	'남자는 어떡해야 한다', '여자는 이래야 한다', '남자답게' '여자답게' 라는 말을 종종 사용한다.					
4	여자 아이가 로봇, 드론, 조립을 잘하면 의외라고 생각한다.					
5	남자 아이가 뜨개질을 하거나, 공기 놀이를 하면 밖에서 놀지 않는 것을 걱정한다.					
6	'살 좀 찢지?' '살 빠졌네', '부어 보인다' 등 몸에 대한 이야기가 나의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오간다.					
7	'오늘 예쁘네' '오늘 멋있다' 와 같은 외모 칭찬은 듣기 좋으니까 해도 좋다고 생각한다.					
8	제사나 집안일을 할 때 성별로 하는 일이 나뉘는 건 어쩔 수 없는 전통문화라고 생각한다.					
9	우리 사회의 여성과 남성은 '외모를 꾸미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똑같이 누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10	성폭력, 성희롱은 가해자의 잘못이긴 하지만 피해자 또한 어느 정도 책임이 있고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1	직장에서 일 열심히 하는 남성 직원은 '열정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일 열심히 하는 여성 직원은 '욕심이 많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					
12	직원 성비는 비슷하지만 관리자가 대부분 남성인 것은 남성 직원들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13	상대방의 외모나 몸매에 대해 친구들과 말하는 것은 나의 표현의 자유다.					
14	성적 농담으로 화기애애해지려면 우리 중에 몇몇 불편한 사람이 있어도 팀워크 면에서는 괜찮다고 생각한다.					
15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은 이미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생각한다.					

해당 문항들은 인구 보건 복지협회 성폭력상담소(2016), 인구 보건 복지협회 성폭력상담소, 나의 성인지 감수성 체크리스트, 여성가족부(2017) 유쾌한 변화 성평등(공무원 대상 성평등 가이드), 한국여성민우회(2018), 조직문화 '성차별 진단' 체크리스트, 산광역시교육청(2021), 성인지 감수성 체크리스트 문항을 살펴봄에 재구성하여 만들어진 문항임



주요내용

- 성인지 감수성의 의미를 살펴본 후, 그렇다면 아이 주변 양육환경이 과연 성인지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성평등 의식을 갖출 수 있을만큼 안전한 환경인지 훑아볼 것을 안내함
- 아이 주변환경으로는 미디어 환경, 또래문화 및 학교, 가정환경 순서로 살펴봄
- 유아뿐만 아니라 아이가 자라나서 초등학생, 청소년들이 되어가는 것까지 전반적으로 살펴볼 것임을 안내함
- 한 번 봤을때가 문제가 아니라 매일 꾸준히 아이들이 이러한 영상에 노출되었을 때, 결과적으로 아이들 내면적으로는 무의식적으로 어떤 사고가 형성될 것 같은지 질문을 던져봄
- 유튜브 '알고리즘'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알 수 없는 알고리즘에 이끌려 영상을 보게 된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봄
- 유튜브 외에 아이들이 많이 보는 아동콘텐츠 애니메이션 속 사회적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된 부분도 함께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눔
- 강사의 주관적인 인식이 아니라, 정말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아이들의 미디어 환경에 대해 안내함. 최근 뉴스 자료를 안내하며 성별 고정관념을 형성하고 성적 대상화가 난무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함

TIP

- 강사의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실제 통계자료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안내하는 것임을 강조함
- 성차별성 내용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성별 고정관념을 조장하거나(전통적인 성역할 수행, 성별화된 캐릭터 이미지 표현, 문제해결방식과 행동 특성에 드러나는 성별



아동콘텐츠에 대한 참고자료

“체중계 부서질까 봐 못 올라가냐” “삼겹살 몇 인분 나오는지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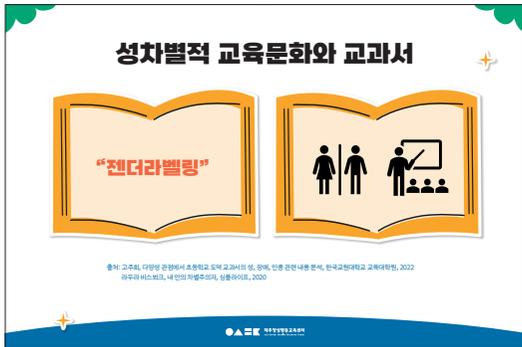
- 주인공 두리가 신체검사 날 체중계 앞에서 망설이자, 뒤에 있던 친구들이 하는 말임. 애니메이션 '신비아파트 고스트볼의 비밀' 3화에 나오는 에피소드임.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발생했다면 정서적 폭력 및 언어 폭력임. 그렇다면 이 에피소드는 '외모 비하'를 일삼고 조롱하는 친구들에게 따끔하게 훈계를 하고 끝나게 될까? 담임 선생님은 "친구를 놀리면 안 된다"며 나지막이 타이르고, 누나 하리와 동네 형 현우가 비분강개하지만 그뿐임. 에피소드가 끝날 때까지 두리를 놀린 친구들은 따끔한 훈육을 받지도, 반성을 하지도 않음



- 괴로움을 당하는 건 두리뿐임. 두리는 도깨비 신비와 그림자 귀신에게 "날씬하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고, 두리의 살이 빠지자 친구들은 그에게 "너 되게 귀여워졌다", "너 살 빠니까 아이돌 같아" 등의 말을 하며 호감을 표함
- 동화책, 애니메이션, 뮤지컬 등 어린이 콘텐츠에서 '외모 비하'가 놀이나 재미로 포장되는 상황을 쉽게 접할 수 있음. 스토리 창의력이 빈약할수록 쉽게 외모 비하로 갈등을 조장하고 오락화하는 식임. 또 나이 든 사람에 대한 연령 비하의 연장선에서 비혼 비하나 아저씨·아줌마 등 호칭 비하도 등장하고 있음. 우리 사회가 펼쳐내야 할 차별들이 아동 콘텐츠에서 재생산되면서, 기성세대가 겪은 차별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수됨

출처: 『똥똥한 아이에 “삼겹살” 모욕... 외모 비하 재미있나요』, 『한국일보』, 2021. 5. 5.

MEMO



주요내용

- 아이 주변 미디어 환경 이후 또래 문화와 학교(교실) 속 모습을 살펴볼 것을 안내함
- 성차별적 교육문화는 없었는지, 교과서는 성 편향적이지 않았는지 물어봄. 재롱잔 치나 학예회를 할 때 여자아이 따로, 남자아이 따로 하지는 않았는지, 교과서 속에 불편한 점은 없었는지, 입학 선물의 색깔이 단지 '성별'을 이유로 다르지는 않았는지, 진로 교육 카드가 사회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반영한 카드는 아니었는지 하나씩 살펴보고 왜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설명함
- 젠더 라벨링의 개념을 알려주며, 단순히 성역할 고정관념이 반영된 것이 아니라 그 젠더 '성'을 기준으로 나누기만 해도 아이들의 성역할 고정관념은 강화된다는 점을 설명함
- 이는 아이가 타인을 바라볼 때 타인이라는 한 개인의 객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이 가진 성별을 먼저 보게 함으로써 성별 고정관념이라는 필터를 낀 채 타인을 바라보게 만든다는 것을 알림
- 스웨덴 성평등교육 유치원 에갈리아의 사례를 이어서 소개함



성차별적 언어 사용에 대한 참고자료

- 성차별적 언어의 문제는 우리 사회 모든 쟁점과 맞닿아 있음. 특히 특정 성에 대한 혐오와 비난으로까지 파생되면서 아직은 미성숙한 아이들에게 더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음. 최근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1인 미디어를 일상적으로 접하기 때문에 인터넷방송인(BJ), 유튜브

버와 같은 개인방송 업로더 등으로부터 성차별적 언어표현을 쉽게 습득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 초등학교들은 공공연하게 교실 안에서 'OO녀', '맘충', '꽃뱀', '한남충', '느금마(너희 어머니)', '느개비(너희 아버지)'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함. 하지만 이러한 용어들의 정확한 뜻조차 모르고 사용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임

- 자신을 초등학교 교사라고 밝힌 A씨는 “3~4학년 아이들이 ‘메갈녀(여성주의 사이트 메갈리아 이용자)를 폄하해 부르는 말), ‘한남유충(남자아동을 비하하는 말)’ 등과 같은 혐오 표현을 사용하며 싸우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아이들에게 그런 말을 어떻게 아냐고 물어보니 ‘인터넷 영상에서 들었다. 우리끼리는 장난으로 많이 쓴다’고 답해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른다”고 함. A씨는 “그런 못된 말을 왜 쓰냐고 나무라자 학생들은 ‘화가 나서 내가 아는 가장 심한 욕을 했다’며 반성했지만 학생들이 무분별하게 따라 하면서 유행어처럼 자리 잡은 것 같아 걱정이다”라고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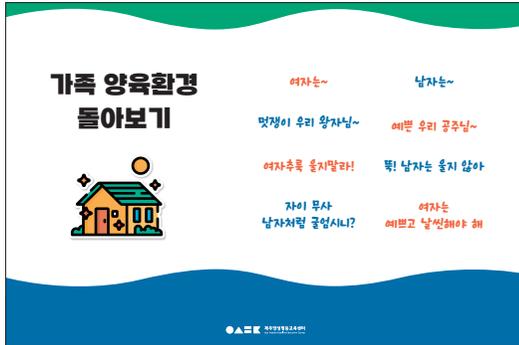
출처: '교실 속 오가는 성차별 혐오 표현... '아이들, 유행어처럼 사용해'', 『국민일보』, 2018. 6. 29.



젠더라벨링에 대한 참고자료

- 젠더 라벨링 학습의 아이들이 개인의 이름을 부른 학습보다 훨씬 성별 고정관념이 강해졌음. 선생님이 성별 고정관념을 입에 올리지 않았고 그저 학습을 남녀로 구분하기만 했는데도 건축가, 의사, 대통령 같은 특정 직업은 '남자들만' 할 수 있다고 대답한 여학생들이 많았음. 반대로 간호사, 가정주부, 베이비시터는 '여자들만' 하는 직업이라고 대답함. '여자들만'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육아를 할 수 있다고도 대답했음
- 이런 성별 고정관념의 강화로 인해 젠더 라벨링 학습의 학생들은 집단 내 개인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함. 한마디로, 선생님이 개인의 특징보다 성별에 집중할 경우 아이들은 집단 안에서 개별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게 됨
- 성평등 교육을 하는 스웨덴의 유치원 '에갈리아'에서는 다른 풍경이 펼쳐짐. 아이들은 성별 고정관념을 거스르는 교육을 받음. 가령 직업 교육을 할 때 우주항공사가 나오면 여성 우주항공사의 사진을 보여줌. 그래서 이곳의 아이들은 성별에 따라 직업이 정해져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음. 동성애 커플이나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아빠가 많이 등장하는 책을 읽어줌. 그래서 아이들은 비록 주변에서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접하더라도 그것만이 유일한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움

출처: 라우라 비스빅, 『내 안의 차별주의자』, 장혜경 옮김, 심플라이프,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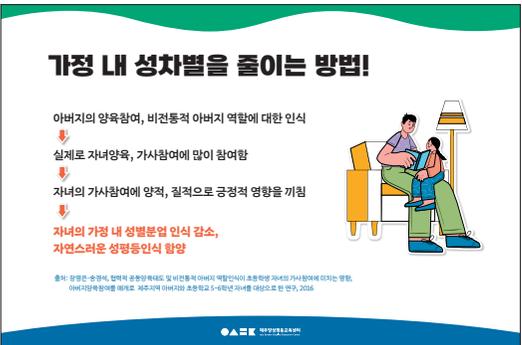


주요내용

- 아이의 양육환경 중 마지막, 가정의 양육환경을 살펴볼 것을 안내함
- 아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양육자는 어떠한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지 체크리스트를 통해 살펴봄
- 가족 양육환경 중 양육자 혹은 아이 주변 어른들의 언어 사용습관이나 언어 생활은 어떠한지 살펴봄
- 혹시 말풍선 속과 같은 말을 어렸을 때 들었거나, 혹은 어린아이에게 본인이 했거나, 또는 어린아이에게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걸 들은 경험이 있는지 이야기를 나눔
- 가정 내 성차별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저 '성'을 기준으로 기대하는 행동양식이 다른 것이 성차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하며 이는 특히 여자아이들에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설명함

TIP

- 이러한 성차별이 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양육자 본인도 모르게' 일어나는 것이며 이는 양육자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사회 속에서 살다보니 우리도 모르게 성역할 고정관념이 담긴 사고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 것임을 강조함
- 절대 양육자 본인이 죄책감을 느낀 채 있지 않도록 안내할 것이며, 지난 과거보다는 앞으로 바꿀 기회가 훨씬 많다는 것을 강조함
- 다양한 단체에서 만든 성인지 감수성 체크리스트 자료를 바탕으로 문항을 재구성하여 배포한 것임을 안내함
- QR코드를 활용하여 성인지 감수성 체크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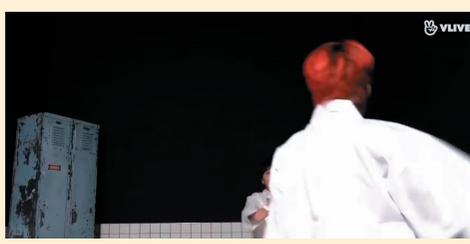


주요내용

- 가정 내 성차별의 의미를 설명함. 단지 성별만으로 양육태도를 달리하는 것이 가정 내 성차별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함
- 아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가정 내 성차별이 남아와 여아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눔
- 이 외 가정환경 중 제사, 가사노동, 가족 호칭 등 가정 내 성평등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소그룹별로 이야기를 나눔



가정 내 성차별에 대한 참고자료



- 문명특급 유교걸 가사 속 '네? 제가 장녀인데 재산 상속은 아들에게 한다고요? 안돼~'라는 가사를 보며 2030 한국 여성들이 느끼는 가정 내 성차별은 무엇일 것 같은지 이야기를 나눔
영상자료: 「유교걸」 뮤직비디오 하이라이트, 유튜브



- 드라마 '치즈 인 더 트랩' 속 장면을 보며 가정 내 성차별의 형태가 여성 자녀뿐만 아니라 남성 자녀에게도 피해를 끼친다는 것을 살펴봄. 이를 바탕으로 가부장제는 결국 모두에게 이롭지 않음을 인지시킴
영상자료: 「치즈 인 더 트랩」, 『tvN』



가정 내 성차별에 대한 연구자료 1

- 가정 내 성차별이 있는 학생이 가정 내 성차별이 없는 학생보다 성역할 고정관념이 유의하게 높았음. 이러한 결과는 가정 내 성차별이 남아에게는 남성성을 강화시키고 여아에게는 여성성을 강화 시킴으로써 기본적으로 양성성을 가진 성역할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성역할 고정관념이 더욱 고착화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음
- 부모 양육 태도는 부모가 자녀를 수용 및 자율적으로 양육한 경우에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유의하게 낮았으며, 거부 및 통제적으로 양육한 경우에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러므로 성평등 의식을 고취하고 다양한 성역할 의식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성역할에 대한 개방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가치판단을 청소년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뤄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출처: 이슬·신태수, 「성역할 고정관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연구: 초등 고학년을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18(1), 미래를 여는 청소년학회, 2021



가정 내 성차별에 대한 연구자료 2

- 일반적으로 여자에게 해당되는 표현이라고 여겨지는 ‘암전해야한다’, ‘함부로 다니지 말아야한다’, ‘몸매에 신경을 써야한다’라는 표현과 남자에게 해당 되는 표현이라고 여겨지는 ‘강해야한다’, ‘울면 안 된다’, ‘운동을 잘해야 한다’라는 표현을 제시하고, 이 각각의 표현들이 남자와 여자 중에서 누구에게 더 어울리는지에 대하여 성별 및 가정에서의 성차별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음
- 성별로 보면 여성적 표현에 대해서 ‘여자’에게 적합한 표현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에서는 여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고, 남성적 표현에 대해서 ‘남자’에게 적합한 표현이라고 인식하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보이는 비율은 남학생이 상대적으로 더 많음. 이러한 결과는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여자와 남자의 행동과 생활모습을 구분하는 표현을 통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아동기의 남아와 여아는 여자와 남자로서 그들에게 적합한 행동과 생활을 사회화하고, 이로 인하여 일정 부분 성역할 고정관념을 갖게 됨을 보여줌
- 또 하나 특이한 것은 가정 내에서의 성차별이 여학생과 남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 형성에 다르게 작용한다는 것임. 여학생들의 경우는 가정 내의 성차별 유무에 따라 여성적 표현이 누구에게 적합한 것인지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남성적 표현이 누구에게 적합한지에 대해서 통계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그러나 남학생들의 경우는 여성적 표현이나 남성적 표현이라고 제시한 6개의 모든 표현이 누구에게 적합한지에 대한 인식에서 가정 내 성차별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았음

- 이러한 현상은 가정 내 성차별이 여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이런 결과에 비추어볼 때 초등학교들의 기본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은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하여 더 강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가정 내 성차별이 아동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미치는 영향은 남학생에 비하여 여학생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임

출처: 구정화, 「가정 내 성차별이 초등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미치는 영향」, 『기전문화연구』, 33, 경인교육대학교 기전문화연구소, 2006



가족 호칭에 관한 참고자료

- 서울여성가족재단은 집사람·안사람·바깥사람처럼 남편은 집 밖에서 일하고, 아내는 집 안에서 일한다는 왜곡된 성 역할에서 비롯된 호칭을 '배우자'로 통일해 부르자고 제안함. 남편의 도움은 외조(外助), 아내의 도움은 내조(內助)라는 표현도 같은 차원으로, 그냥 '배우자의 도움'이라고 하면 됨
- 친가·외가는 꾸준히 논란이 됐던 표현으로. "왜 아버지 쪽 부모님은 '가까울 친(親)' 자를 쓰고, 어머니 쪽 부모님은 '바깥 외(外)' 자를 써야 하는가"는 불만 여론이 많았음. 이 역시 '아버지 본가', '어머니 본가'로 풀어서 부르자는 게 재단의 권고임

출처: 「"이번 설엔 성차별 호칭 바꾸자". 장모님→어머님, 주부→살림꾼」, 『중앙일보』, 2019. 2. 1.

- 가족 내 쓰이는 호칭 중에는 남성 중심적인 표현이 많으며, 남편의 집안은 '시댁(媿宅)'으로 높여 부르는 반면, 아내의 집안은 '처가(妻家)'로 부르는 것은 대표적인 성차별 용어 중 하나임. 또 양가의 조부모님을 부를 때도 남성 중심적인 분위기가 나타남. 아버지의 부모 호칭은 '친(親)할머니' 또는 아무것도 붙이지 않은 '할아버지'인 반면, 어머니의 부모를 부를 때는 '바깥 외(外)'를 붙여 외(外)할머니, 외(外)할아버지라고 구분지음
- 국립국어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남편의 동생은 '도련님', '아가씨'라고 부르는 관행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5.8%에 달함

출처: 「외할머니는 왜 외할머니 인가요. 성차별 언어들,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SBS뉴스』, 2018. 9. 8.

제주지역
성인지 통계

“가정 내 가사분담은 어떻게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행정구역별	연령·교육정도·혼인상태별	2020					
		13세 이상 인구	남편이 전적으로 책임	부인이 주로 하지만 남편도 분담	공평하게 분담	남편이 주로 하지만 부인도 분담	남편이 전적으로 책임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100.0	3.8	29.2	64.7	1.6	0.7
	13~19세	100.0	1.3	6.6	86.0	3.2	2.9
	20~29세	100.0	1.7	11.2	85.0	2.1	0.0
	30~39세	100.0	1.3	21.9	75.4	1.0	0.3
	40~49세	100.0	2.9	29.8	65.0	0.8	1.5
	50~59세	100.0	5.3	37.8	55.2	1.6	0.0
	60세 이상	100.0	6.8	44.0	47.1	1.7	0.5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성/행정구역/연령·교육정도·혼인상태별)



“가정 내 가사분담은 어떻게 분담하고 있나요?”

부인이 주로 하지만 남편도 분담한다.

기혼여성의 가사분담 실태(행정구역/연령·교육정도별)



행정구역별	연령·교육정도별	2020					
		기혼녀	남편이 전적으로 책임	부인이 주로 하지만 남편도 분담	공평하게 분담	남편이 주로 하지만 부인도 분담	남편이 전적으로 책임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100.0	23.6	51.9	22.1	2.1	0.3
	13~19세	0.0	0.0	0.0	0.0	0.0	0.0
	20~29세	100.0	6.7	54.2	39.1	0.0	0.0
	30~39세	100.0	14.7	49.0	34.6	1.7	0.0
	40~49세	100.0	25.1	50.7	20.9	3.9	1.0
	50~59세	100.0	26.7	42.4	18.7	1.2	0.0
	60세 이상	100.0	18.2	61.6	17.7	2.5	0.0

이젠 가족호칭도
바뀌어야 할 때

가족호칭 성차별 인식 조사

1월29일 전국 성인 504명
표본오차 ±3.4%p(95%신뢰수준)
응답률 7.4%, 외화기관·오마이뉴스

성차별이다 31.9%
무응답 18.6%
성차별 아니다 49.5%

도련남 vs 처남

연령	여성	남성
20대	60.7	14.8
30대	64	19.1
40대	65.9	27.1
50대	24.5	54.4
60대 이상	25	48.7

연령	여성	남성
20대	20	67.3
30대	20.9	62
40대	21.9	61.3
50대	18.7	62.9
60대 이상	12.9	65.9

자료: 리얼미터

18.01.131 뉴스스 그레픽: 천진우 기자 tju@news1.com

- 집사람, 안사람, 바깥사람
→ 배우자
- 외조, 내조
→ 배우자의 도움
- 친가, 외가
→ 아버지 분가, 어머니 분가
-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 아버님, 어머님.



제주지역의 제례문화는 성평등한가?

“제사 시 남성과 여성이 하는 일은 어떻게 다른가요?”

축문 작성, 의례 주도는 “남성”, 장보기, 음식 만들기는 “여성”

제사를 위하여 시장 보기와 음식 만들기는 부인이 수행하는 비율이 높고, 축문 작성과 의례 수행의 주도는 남편이 수행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제사의 절차적 형식 수행을 담당하는 남성 에 비해 여성의 가사노동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남

시장 보기



제사를 위한 시장 보기는 부인 50.3%, 남편과 부인 23.6%, 가족이 함께 23.1%, 남편 3.1% 순으로 부인이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 가족구성원 중 부인의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음식 만들기



제사를 위한 음식 만들기는 부인 49.6%, 가족이 함께 40.7%, 남편과 부인이 함께 8.7%, 남편 1.0% 순으로 부인이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가족이 함께 하는 경우가 많았음

축문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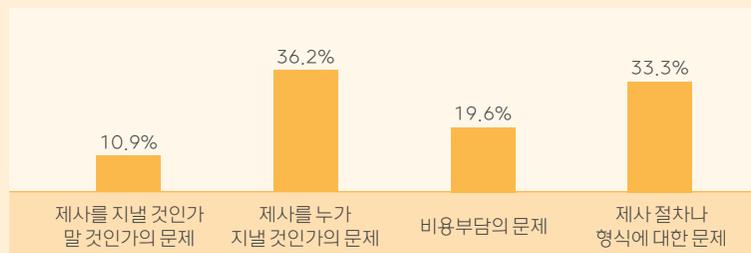
축문의 작성은 남편 79.7%, 가족이 함께 14.7%, 남편과 부인이 함께 3.5%, 부인 2.2% 순으로 축문은 주로 남성인 남편이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의례 수행 주도



의례 수행 주도는 남편 74.9%, 가족이 함께 20.4%, 남편과 부인 3.2%, 부인 1.5%로 대부분 남편이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제사 후 가족과의 갈등 내용



제사 후 가족과의 갈등을 경험한 경우, 그 내용은 '제사를 누가 지낼 것인가의 문제' 36.2%, '제사 절차나 형식에 대한 문제' 33.3%, '비용부담의 문제' 19.6%, '제사를 지낼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 10.9% 순으로 제사 주관자의 지정과 제사의 절차 또는 형식에 대한 문제가 갈등의 주요 내용인 것으로 나타남

제사에 대한 성불평등 인식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성불평등한 문화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그렇지 않다 37.4%, 보통이다 32.9%, 그렇다 29.7% 순으로 나타나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성불평등한 문화가 아니라는 인식이 그렇다는 인식보다 7.7% 더 많음

제사 문화 중 성불평등한 영역



제사 문화 중 성불평등한 영역은 ‘시장 보기 및 음식 만들기’ 53.7%, ‘청소 및 설거지’ 24.1%, ‘제사 절차’ 14.5%, ‘가족 및 친지들과의 만남과 대화’ 4.1%, ‘제사 때 주요 대화에서 배제하기’ 3.6% 순으로 나타나 시장 보기, 음식 만들기, 청소, 설거지 등과 같은 가사 노동에 대한 성불평등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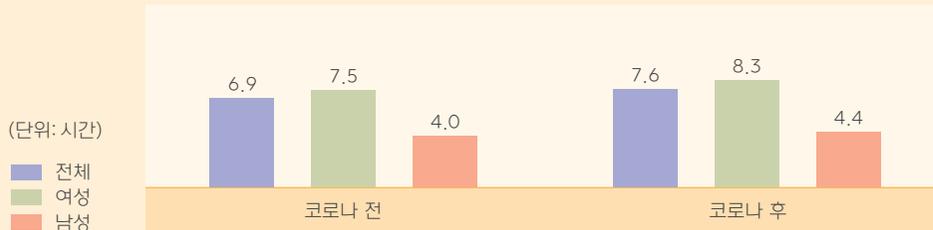
출처: 신승배·문순덕·김선필,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제주지역 제례에 관한 연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2018

MEM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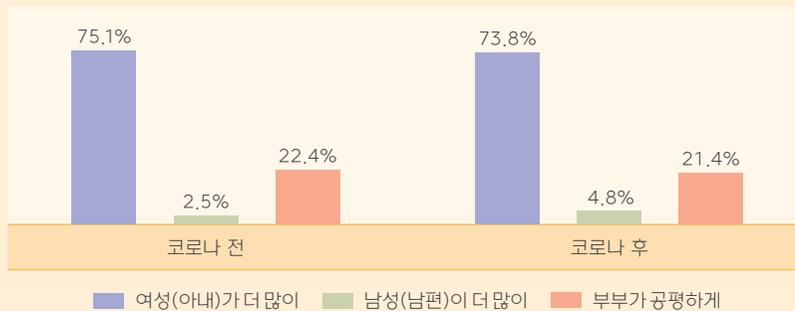
코로나19 이후 제주지역 가족 환경 실태 참고자료

코로나로 인한 가사노동 시간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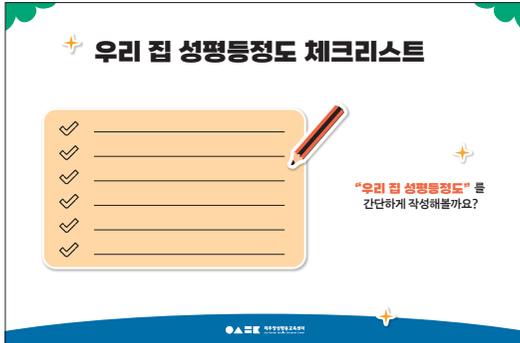
-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과 현재 각각에 대해 '자녀돌봄을 포함한 하루 평균 가사노동 시간'을 조사한 결과, 코로나 전 6.9시간 현재 7.6시간으로 나타남
-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7.5시간에서 8.3시간으로 0.8시간 증가 남성은 4.0시간에서 4.4시간으로 0.4시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 전과 후 모두 여성은 남성보다 가사노동 시간이 약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보임

코로나로 인한 가사노동 부담의 변화



-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과 현재 각각에 대해 '가사노동 부담 정도'를 조사한 결과, 코로나 전과 현재 모두 '아내가 더 많이'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부부가 공평하게'로 나타남
- 코로나로 인해 가족이 함께 있는 시간과 가사노동은 증가했지만, 가사노동에 대한 책임은 대부분의 가정에서 아내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변화는 감지되지 않음

출처: 정여진, 「코로나 블루와 제주지역 가족의 변화」, 제주여성가족연구원, 2021. 2. 28.



주요내용

- 이제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우리 아이의 주변환경을 다시 살펴보자고 분위기를 환기함
- 현재 우리 집의 성평등 정도는 어떠한지 체크리스트를 통해 체크해보며, 어떠한 점에서 보다 성평등할 수 있는지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

TIP

- 다양한 단체에서 만든 성인지 감수성 체크리스트 자료를 바탕으로 문항을 재구성하여 배포한 것임을 안내함
- QR코드를 활용하여 체크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음



‘우리 집 성평등 정도 체크리스트’ 참고자료

해당 문항들은 인구 보건 복지협회 성폭력상담소(2016), 인구 보건 복지협회 성폭력상담소, 나의 성인지 감수성 체크리스트, 여성가족부(2017) 유쾌한 변화 성평등(공무원 대상 성평등 가이드), 한국어 성민우회(2018), 조직문화 ‘성차별 진단’ 체크리스트, 울산광역시교육청(2021), 성인지 감수성 체크리스트 문항을 살펴보고 재구성하여 만들어진 문항임

가정 내 성평등 정도 체크 설문지

본 설문지는 가정의 성평등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지입니다.

아래 문항을 잘 읽고 체크 해주시기 바랍니다.

1. 본인의 성별은 무엇인가요? (하나만 체크합니다)

- 남성 여성

2. 가정 내 성평등 중요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만 체크합니다)

- 전혀 중요하지 않다 1 2 3 4 5 매우 중요하다

3. 가정 내 성평등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만 체크합니다)

-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1 2 3 4 5 매우 영향을 끼친다

가정 내 가사분담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정 내 가사분담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해당 역할일 때 하는 일들을 모두 체크해보세요.

4. 가정 내 가사분담은 어떻게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만 체크합니다)

- 부인이 전적으로 책임
 부인이 주로 하지만 남편도 분담
 공평하게 분담
 남편이 주로 하지만 부인도 분담
 남편이 전적으로 책임

5. 가정 내 가사분담은 어떻게 분담하고 있나요? (하나만 체크합니다)

- 부인이 전적으로 책임
 부인이 주로 하지만 남편도 분담
 공평하게 분담
 남편이 주로 하지만 부인도 분담
 남편이 전적으로 책임

6. 가정이나 집안 문화 내에서 부인이 주로 하는 일에 체크해보세요. (해당 사항에 모두 체크합니다)

- | | |
|---------------------------------------|---|
| <input type="checkbox"/> 설거지 | <input type="checkbox"/> 제사나 명절에 먹을 음식 장보기 |
| <input type="checkbox"/> 요리 | <input type="checkbox"/> 제사나 명절에 음식 나르기 |
| <input type="checkbox"/> 방 청소, 집 안 청소 | <input type="checkbox"/> 제사나 명절에 설거지하기 |
| <input type="checkbox"/> 화장실 청소 | <input type="checkbox"/> 제사나 명절에 축문 쓰기 |
| <input type="checkbox"/> 빨래 널기 | <input type="checkbox"/> 제사나 명절에 의례 주도하기 |
| <input type="checkbox"/> 음식물쓰레기 버리기 | <input type="checkbox"/> 학교에서 오는 전화 받기 |
| <input type="checkbox"/> 화분에 물주기 | <input type="checkbox"/> 학부모로서 학교 행사 참여하기 |
| <input type="checkbox"/> 분리수거하기 | <input type="checkbox"/> 자녀 학교 숙제 같이 도우며 풀기 |
| <input type="checkbox"/> 아이 등하교 | <input type="checkbox"/> 자녀와 같이 놀기 |
| <input type="checkbox"/> 명절 선물 준비 |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_ |

7. 가정이나 집안 문화 내에서 남편이 주로 하는 일에 체크해보세요. (해당 사항에 모두 체크합니다)

- | | |
|---------------------------------------|---|
| <input type="checkbox"/> 설거지 | <input type="checkbox"/> 제사나 명절에 먹을 음식 장보기 |
| <input type="checkbox"/> 요리 | <input type="checkbox"/> 제사나 명절에 음식 나르기 |
| <input type="checkbox"/> 방 청소, 집 안 청소 | <input type="checkbox"/> 제사나 명절에 설거지하기 |
| <input type="checkbox"/> 화장실 청소 | <input type="checkbox"/> 제사나 명절에 축문 쓰기 |
| <input type="checkbox"/> 빨래 널기 | <input type="checkbox"/> 제사나 명절에 의례 주도하기 |
| <input type="checkbox"/> 음식물쓰레기 버리기 | <input type="checkbox"/> 학교에서 오는 전화 받기 |
| <input type="checkbox"/> 화분에 물주기 | <input type="checkbox"/> 학부모로서 학교 행사 참여하기 |
| <input type="checkbox"/> 분리수거하기 | <input type="checkbox"/> 자녀 학교 숙제 같이 도우며 풀기 |
| <input type="checkbox"/> 아이 등하교 | <input type="checkbox"/> 자녀와 같이 놀기 |
| <input type="checkbox"/> 명절 선물 준비 |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_ |

8. 가정이나 집안 문화 내에서 딸이 주로 하는 일에 체크해보세요. (해당 사항에 모두 체크합니다)

- | | |
|---------------------------------------|---|
| <input type="checkbox"/> 설거지 | <input type="checkbox"/> 제사나 명절에 먹을 음식 장보기 |
| <input type="checkbox"/> 요리 | <input type="checkbox"/> 제사나 명절에 음식 나르기 |
| <input type="checkbox"/> 방 청소, 집 안 청소 | <input type="checkbox"/> 제사나 명절에 설거지하기 |
| <input type="checkbox"/> 화장실 청소 | <input type="checkbox"/> 제사나 명절에 축문 쓰기 |
| <input type="checkbox"/> 빨래 널기 | <input type="checkbox"/> 제사나 명절에 의례 주도하기 |
| <input type="checkbox"/> 음식물쓰레기 버리기 | <input type="checkbox"/> 학교에서 오는 전화 받기 |
| <input type="checkbox"/> 화분에 물주기 | <input type="checkbox"/> 학부모로서 학교 행사 참여하기 |
| <input type="checkbox"/> 분리수거하기 | <input type="checkbox"/> 자녀 학교 숙제 같이 도우며 풀기 |
| <input type="checkbox"/> 아이 등하교 | <input type="checkbox"/> 자녀와 같이 놀기 |
| <input type="checkbox"/> 명절 선물 준비 |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_ |

9. 가정이나 집안 문화 내에서 아들이 주로 하는 일에 체크해보세요. (해당 사항에 모두 체크합니다)

- | | |
|---------------------------------------|---|
| <input type="checkbox"/> 설거지 | <input type="checkbox"/> 제사나 명절에 먹을 음식 장보기 |
| <input type="checkbox"/> 요리 | <input type="checkbox"/> 제사나 명절에 음식 나르기 |
| <input type="checkbox"/> 방 청소, 집 안 청소 | <input type="checkbox"/> 제사나 명절에 설거지하기 |
| <input type="checkbox"/> 화장실 청소 | <input type="checkbox"/> 제사나 명절에 축문 쓰기 |
| <input type="checkbox"/> 빨래 널기 | <input type="checkbox"/> 제사나 명절에 의례 주도하기 |
| <input type="checkbox"/> 음식물쓰레기 버리기 | <input type="checkbox"/> 학교에서 오는 전화 받기 |
| <input type="checkbox"/> 화분에 물주기 | <input type="checkbox"/> 학부모로서 학교 행사 참여하기 |
| <input type="checkbox"/> 분리수거하기 | <input type="checkbox"/> 자녀 학교 숙제 같이 도우며 풀기 |
| <input type="checkbox"/> 아이 등하교 | <input type="checkbox"/> 자녀와 같이 놀기 |
| <input type="checkbox"/> 명절 선물 준비 |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_ |

10. 가사노동과 자녀돌봄에 참여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면? (해당 사항에 모두 체크합니다)

-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육체적 피곤
-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시간 부족
- 가사노동, 자녀돌봄 할 줄 모름
-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함
- 다른 사람이 알아서 잘 하고 있기 때문
- 근로시간 외 음주, 접대, 야근으로 인하여
- 가장으로서의 체면 때문에
- 주위 사람들이 시선 때문에
- 가사노동과 자녀 돌봄에 참여하고 있어서 이 문항에 체크할 수 없음
- 기타: _____

11. 안정된 가정을 위해서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가장으로서의 위엄과 권위를 지켜야한다.

(하나만 체크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4 5 매우 그렇다

12. 집 안 일에는 남자가 할 일과 여자가 할 일이 따로 있다. (하나만 체크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4 5 매우 그렇다

13. 이혼한 여성 쪽에 양육권이 있더라도, 그 자녀는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

(하나만 체크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4 5 매우 그렇다

14. 엄마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직장에 다니지 않는 것이 자녀 양육과 교육, 돌봄을 위해 좋다. (하나만 체크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4 5 매우 그렇다

15. 결혼한 딸에게도 아들과 똑같은 유산을 물려주게 하는 상속제도는 잘못되었다.

(하나만 체크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4 5 매우 그렇다

16. 여자의 본분은 자녀를 키우고 집안일을 돌보는 것이다. (하나만 체크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4 5 매우 그렇다

17. 형광등 교체, 짐 옮기는 일, 힘을 쓰는 일은 아들이, 요리나 청소는 딸이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하나만 체크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4 5 매우 그렇다

18. 딸은 커서 전문직을 갖더라도 우선 가사일과 육아를 잘 할 수 있게 키워야 한다.

(하나만 체크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4 5 매우 그렇다

19. 아들과 딸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키워야 한다. (하나만 체크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4 5 매우 그렇다

20. 재산은 아들과 딸 구별없이 똑같이 물려줄 것이다. (하나만 체크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4 5 매우 그렇다

21. 딸에게 어울리는 직업, 아들에게 어울리는 직업이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만 체크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4 5 매우 그렇다

가정 내 성평등 인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22. 맞벌이 부부는 집안일도 똑같이 나누어서 해야 한다. (하나만 체크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4 5 매우 그렇다

4

성평등한 양육을 위한 10가지 실천약속 만들기

- ✦ 성평등한 10가지 실천약속 설계하기
- ✦ 나다움의 중요성 제고하기



주요내용

- 아이가 아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여자다움, 남자다움 안에 감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성평등한 양육 10가지 실천약속을 작성함
-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다양한 자료를 미루어봤을 때, 아이의 주변환경 및 양육자의 말과 행동, 가정 문화가 어떻게 바뀌면 좋을지를 생각해봄여 작성해볼 것을 제안함
- 구체적이고 자세할수록, 각 가족 구성원들이 확실히 지킬 수 있는 것일수록 실천률이 올라간다는 것을 안내하며, 꼭 지킬 수 있는 것 10가지를 차례대로 적어볼 것을 제안함

TIP

- 10가지 실천약속을 작성하기 어려워 할 경우 예시 자료를 추가 제공함
- 생각을 쓸 때, 아무리 뻘한 답이라도 일단 적어볼 것을 제안함. 계속 쓰다보면 처음에 나왔던 뻘한 답 아래 신박한 답변들이 생각나기 마련이기 때문에, 일단은 생각나는 것을 다 적어볼 것을 강조하며 쓰기와 생각 걷어내기의 중요성을 강조함
- 부드러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잔잔한 음악을 배경음악으로 틈
- QR코드를 활용하여 실천 약속을 작성할 수 있음

MEMO

5

마무리

- ✦ 왜 지금, 성평등 교육인지에 대한 마무리 설명
- ✦ 가정 내 성평등 문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함을 동기부여 하며 마무리



‘우리 집 성평등 정도 체크리스트’ 참고자료

울산광역시 교육청. 2021 성인지 감수성 체크리스트

내용		질문문항
1	성차별 인식	학교에서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덜 대우받고 사실상 역차별을 당한다고 생각한다.
2	성별 고정관념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원래 공감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3	성차별 인식	왕따나 뒷담화(관계적 폭력)를 행하는 것은 여학생의 특성이라고 생각한다.
4	성별 고정관념	체육 활동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흥미가 없는 것은 여학생들의 특성이라고 생각한다.
5	성별 고정관념	남학생이 성(性)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6	성차별 인식	‘남자는 어떡해야 한다’, ‘여자는 이래야 한다’, ‘남자답게’ ‘여자답게’라는 말을 들을 때, 불편감 또는 저항감이 든다.
7	성별 고정관념	여학생들이 로봇, 드론, 조립을 잘하면 의외라고 생각한다.
8	성별 고정관념	학교에서 성평등 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9	성차별 인식	스쿨미투 운동은 학교문화를 바람직하게 바꿀 것이라고 생각한다.
10	성폭력 인식	동료에게 ‘날씬해졌다’는 말은 칭찬이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11	성차별 인식	우리 사회의 여성과 남성은 ‘외모를 꾸미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똑같이 누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12	성폭력 인식	성폭력은 가해자의 잘못임이 분명하지만, 피해자 또한 클럽 방문이나 본인의 옷차림 등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3	디지털 성범죄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영상)을 돈을 주고 사서 보는 것은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14	디지털 성범죄	SNS에서 다른 사람의 프로필 사진을 동의 없이 캡처하거나 합성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15	디지털 성범죄	사진(영상)을 찍을 때 언제나 상대방에게 허락을 구하고 찍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6	미디어 리터러시	본인의 동의하에 찍은 사진(영상)이 유포된다면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17	미디어 리터러시	지인들과의 단독방에서 사진을 공유하고 사진에 대한 평가(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행위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18	성폭력 인식	온라인에서 발생한 성폭력은 오프라인에서 발생한 성폭력보다는 덜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19	디지털 성범죄	아동, 청소년을 이용한 성 착취 영상물(신체노출사진)을 단순히 가지고만 있었는데도 처벌되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한다.
20	미디어 리터러시	여성의 몸에 대하여 과장된 성적 이미지의 광고, 게임을 보면 불편하다.

유쾌한 변화 성평등(공무원 대상 성평등 가이드), 성평등 자가진단 (2017)

나의 공동살림지수는?	
1	설거지, 빨래 등 집안일은 가족이 함께 해야 한다.
2	자녀양육과 교육은 남편과 아내가 함께 해야 한다.
3	가족의 자산은 남편과 아내가 함께 관리해야 한다.
4	명절·제사 준비는 가족이 함께 해야 한다.
5	결혼 후 양가 부모님에 대해 동등하게 생각하고 챙겨야 한다.
나의 직장평등지수는?	
1	나의 직장평등지수는?
2	자녀양육과 교육은 남편과 아내가 함께 해야 한다.
3	가족의 자산은 남편과 아내가 함께 관리해야 한다.
4	명절·제사 준비는 가족이 함께 해야 한다.
5	결혼 후 양가 부모님에 대해 동등하게 생각하고 챙겨야 한다.
나의 성인지 감수성은?	
1	여자들은 예쁘다, 섹시하다 등 외모나 성적 매력을 칭찬받는 것을 좋아한다.
2	재미있는 농담에 성적인 내용이 일부 들어가는 것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한다.
3	상대방의 “싫다” 중에는 예의상 거절이나 좋으면서도 툭기는 경우도 있다.
4	접대 업무나 회의 준비 등의 업무는 여성이 맡는 것이 좀 더 보기 좋고 편안하다.
5	우리나라의 성평등 인식·수준은 이미 충분히 개선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6	노출이 심한 옷과 같이 피해자에게 일정정도 책임이 있는 사례도 있을 것이다.
7	가벼운 스킨십은 친근함을 표현하기 위하여 가끔 필요하다.
8	휴식 시간 중에 잠깐 야한 동영상 보는 것은 나의 자유이며 사생활이다.
9	피해자의 일방적인 느낌을 성희롱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10	성적 불쾌감이 들어도 조직을 위해 어느 정도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p>체크항목</p> <p>0개: 훌륭해요! / 1~3개: 조금 더 분발이 필요해요 / 4~6개: 인식 개선이 필요해요 / 7~10개: 매우 위험해요</p>	

인구 보건 복지협회 성폭력상담소. 나의 성인지 감수성 체크리스트 (2016)

질문문항	
1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상대방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2	나의 제안에 상대방이 침묵했다면 나의 제의를 받아들인다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3	나는 스킨십이나 성적인 접촉을 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이 짜질하다고 생각한다.
4	나의 성적 제의에 상대방이 '싫다'고 말할 때, 속으로 좋으면서 텅긴다고 생각한다.
5	혼자 있는 내 자취방에 상대방이 흔쾌히 들어왔다는 것은 성적 관계를 허락한 것이며 성적 행동에 합의가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6	친밀한 사이에서는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가벼운 스킨십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7	둘이서 함께 찍은 가벼운 스킨십 사진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내 블로그에 올려도 된다고 생각한다.
8	나는 동영상의 야한 장면을 실천에 옮기고 싶다는 환상을 갖고 있다.
9	상대방의 외모다 몸매에 대해 친구들과 말하는 것은 나의 자유다.
10	성적 농담으로 화기애애해지면 우리 중에 몇몇 불편한 사람이 있어도 팀워크 면에서는 괜찮다고 생각한다.
체크항목 0개: 멋진 당신이네요 / 1개~3개: 분발하세요 4개~6개: 의식개선이 필요합니다 / 7개 이상: 위험합니다.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세요	

2018 한국여성민우회 조직문화 성차별진단 체크리스트

질문문항	
1	'살 좀 찼지?' '살 빠졌네' '부어 보인다' 등 몸에 대한 이야기가 일상적으로 오간다.
2	'오늘 예쁘네' 같은 외모 칭찬은 괜찮다고 인식하는 것 같다.
3	비공식적 자리에서 은근슬쩍, 일방적으로 말을 놓는 상사·동료가 있다.
4	같은 행동에 대해 남성은 '철저하고 책임감 있다', 여성은 '간간해 피곤하다'고 다르게 평가할 때가 있다.
5	열심히 일하는 남성 직원은 '열정이 있다'고 평가하지만, 여성 직원은 '욕심이 많다'고 평가한다.
6	여성 상사를 비하하는 말이 '유리천장'을 공고하게 하는 분위기가 있다.
7	상사의 농담이 불쾌해도 '최대한 불편하지 않게' '낙살 좋게'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다.
8	회식·술자리에 참석하지 않으면 사회성 없거나 이기적인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 같다.
9	상사가 시키면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대로 하는 것이 권장되며, 그런 직원이 인정받는 분위기이다.
10	상사가 직원에게 큰소리를 내거나 폭언을 한 적이 있다.
11	여성은 내근이나 보조 업무에 배치하는 경향이 있다.
12	직원 성비는 비슷하지만 관리자는 대부분 남성이다.
13	성희롱 예방교육이 형식적으로 진행된다.

※ 2018년 한국여성민우회가 1~15년차 여성 직장인 20명을 인터뷰한 내용과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꼽은 바뀌어야 할 조직 문화 중 일부다. 해당 문항이 많을수록 조직 구성원 누군가는 불편을 겪을 확률이 크다.



양육자 대상 강의 매뉴얼 참고자료

- 강경석·박연희, 「부모의 양성평등 의식이 유아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17(1), 한국아동교육학회, 2008, 41~54면
- 고영실·박용한,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 어머니의 일·가정 양립과 유아의 성역할 고정관념의 관계」, 『열린부모교육연구』, 12(2), 열린부모교육학회, 2020, 1~18면
- 고주희, 「다양성 관점에서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의 성, 장애, 인종 관련 내용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22
- 구정화, 「가정 내 성차별이 초등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미치는 영향」, 『기전문화연구』, 33, 경인교육대학교 기전문화연구소, 2006, 53~79면
- 김인식·김자미, 「유튜브 알고리즘과 확증편향」, 『한국컴퓨터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5(1), 한국컴퓨터교육학회, 2021, 71~74면
- 박은혜·김희진·조문현·최혜영, 「유아기 부모의 양성평등의식교육 프로그램 모형 개발」, 『유아교육연구』, 25(2), 한국유아교육학회, 2005, 165~198면
- 서울YWCA,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미디어로 만나는 성평등』, 2020
- 서울YMCA,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분석 보고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20
- 신승배·문순덕·김선필,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제주지역 제례에 관한 연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2018
- 언론개혁시민연대, 『유튜브 ‘키즈 콘텐츠’ 이제 ‘성평등’ 관점을 고민할 때 토론회 자료』, 2019
- 여성가족부, 『유쾌한 변화 성평등(공무원 대상 성평등 가이드)』, 2017
- 이영아,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성인지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 및 인권의식의 조절 효과」, 『학교사회복지』, 51,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2020, 79~98면
- 이슬·신태수, 「성역할 고정관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연구: 초등 고학년을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18(1), 미래를 여는 청소년학회, 2021, 25~47면
- 인구 보건 복지협회 성폭력상담소, 나의 성인지 감수성 체크리스트, 2016
- 장영은·송경석, 「협력적 공동양육태도 및 비전통적 아버지 역할인식이 초등학생 자녀의 가사참여에 미치는 영향」, 『가정과삶의질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가정과삶의질학회, 2016
- 장한별·김민영·김유진·이연정·이중원, 「게임 속 여성 캐릭터의 성적 대상화가 남성 사용자들의 성적 인식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26(2), 가정과삶의질학회, 2018
- 정여진, 「코로나 블루와 제주지역 가족의 변화」, 제주여성가족연구원, 2021. 2. 28.
- 최혜선,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성평등적 성역할태도가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열린부모교육연구』, 13(3), 열린부모교육학회, 2021, 215~230면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성평등미디어포럼 발표자료집』, 한국인문진흥재단, 2021
- 한국여성민우회, 「조직문화 ‘성차별 진단’ 체크리스트」, 2018

도서

- 라우라 비스빅, 『내 안의 차별주의자』, 장혜경 옮김, 심플라이프, 2020
- 시몬 드 보부아르, 『제2의 성』, 을유문화사, 2016

보도자료

- 「교실 속 오가는 성차별·혐오 표현... “아이들, 유행어처럼 사용해”」, 『국민일보』, 2018. 6. 29.
- 「청소년 등장하는 유튜브 절반, 성차별 담겼다」, 『미디어오늘』, 2021. 12. 10.
- 「5살 여아에게 ‘뒤태 여신’ 성차별 썸네일로 ‘어그로’ 끄는 유튜버들」, 『여성신문』, 2020. 11. 21.
- 「“제사 명절. 여성 가사부담 많아” 성평등한 제례 어떻게」, 『연합뉴스』, 2019. 2. 3.
- 「“유튜브 조회수 올리려고... 성차별적 썸네일·제목 무분별 사용”」, 『우먼타임스』, 2021. 9. 24.
- 「“이번 설엔 성차별 호칭 바꾸자”. 장모님→어머님, 주부→살림꾼」, 『중앙일보』, 2019. 2. 1.
- 「똥똥한 아이에 “삼겹살” 모욕... 외모 비하 재미있나요」, 『한국일보』, 2021. 5. 5.
- 「“몰카녀”, “맛을 짓 그만해” 웹툰과 유튜브 절반 이상이 ‘성차별적」, 『한국일보』, 2021. 12. 3.
- 「세상의 모든 작은 사람들이 나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한국일보』, 2019. 9. 2.
- 「외할머니는 왜 외할머니 인가요. 성차별 언어들,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SBS뉴스』, 2018. 9. 8.
- 「청소년 유튜브 영상 성차별표현, 대체 왜 이럴까」, 『SBS뉴스』, 2021. 12. 8.

인터넷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https://bit.ly/3SQWvKK>)
- 울산광역시교육청, 성인지 감수성 체크리스트 (<http://use.pms.or.kr/main.php>)
- 문명특급 - MMTG, 「브라걸 Brown Live Girls ‘유교걸’ U-gyo-girl Highlight」, 유튜브, (<https://bit.ly/3gYGWmQ>)
- 씨리얼, 「“아들은 파란색?” 아이를 둘러싼 성역할 고정관념, 유년기의 맨박스(MANBOX)」, 유튜브 (<https://bit.ly/3Fx1Gwy>)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지역성인지통계 (<http://gs.jewfri.kr/>)
- 한국리서치, 「2022 젠더인식조사」 젠더갈등과 성차별 인식 (<https://bit.ly/3Njjkpi>)
- 「치즈 인 더 트랩」, 『tvN』 (<https://bit.ly/3FtO2dv>)

2022년 대상별 맞춤형 양성평등 교육 표준 강의안 매뉴얼

발행처	제주특별자치도,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발행일	2022년 10월 31일
발행인	민무숙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오로 54, 2층(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연락처	064) 712. 4940
홈페이지	jejuegen.kr
디자인·제작	오도오도스튜디오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인용은 가능하나
내용의 무단 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



